

청소년상담자의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인식과 경험

이 속 역 서 영 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생 교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청소년상담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년 이상의 청소년상담 경력을 갖추고 사회정의상담에 해당하는 개입을 적용한 경험이 있는 11명의 청소년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구성주의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청소년상담체계와의 유사성’, ‘사회정의상담의 적용 가능성’, ‘도전으로서의 사회정의상담’, ‘상담사 역할 확대’, ‘과학자-실무자-옹호자 교육및훈련 모델로의 변화’ 등 청소년상담자의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의상담의 관점으로 청소년상담자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적인 사회정의상담 개입인 ACA 옹호역량(ACA Advocacy Competencies)을 채택하였다. 청소년상담자들은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이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ACA 옹호역량에 해당하는 ‘내담자 역량 강화 개입’, ‘사전 계획 활동’, ‘협업’, ‘환경 개선 개입’, ‘문제 예방 개입’, ‘자원/정책 개발 개입’ 등을 활발하게 실행하였고, 본 면접을 통해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참여자 인식 변화’를 경험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상담실제, 상담자교육 및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사회정의, 융호, 청소년상담, 사회정의상담, 구성주의, 근거이론

† 교신저자 :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육학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 02-2123-6171, E-mail : seox0004@yonsei.ac.kr

Copyright ©2025,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202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으며, 12~14세 청소년의 자살률은 2020년 3.2명에서 2021년 5.0명으로 급증하는 등(여성가족부, 2023; 통계청, 2022)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관심과 돌봄이 절실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상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사와의 관계, 상담과정, 상담기술 및 상담 전략 측면에서 아동상담 및 성인상담과 차별적인 특성을 갖는다(노성덕, 2018; Geldard & Geldard, 2010/2015). 가족, 또래, 학교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청소년의 특성상 상담에서도 부모, 교사 등 청소년 관련인을 비롯한 주변 환경에 대한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정순례 외, 2020). 국내 청소년상담 현장에서는 부모, 친구, 또래, 제도, 법률, 문화에 이르기까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상담의 틀에서 벗어나 독특한 개입전략들을 개발하였고, 이를 지역사회기반 청소년상담모형으로 체계화하였다(노성덕, 2018). 이처럼 우리나라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는 청소년 특성에 적합한 지역사회기반의 외적 개입전략들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담전문가 교육과정이나 교육모델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국내 상담 분야에서는 내담자 개인의 적응과 변화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인 상담을 넘어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환경적 맥락을 고려하고 내담자의 문제를 초래하는 사회적 상황이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자 하는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임은미, 2020). 사회정의상담은 2000년대 들어 북미를 중심으로 다문화상담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는데, 다문화상담이 내담자 개인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상담실 안에서 개인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 반면(Arredondo et al., 1996), 사회정의(및 옹호)상담은 개인의 문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환경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맥락을 개선하기 위한 상담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Lee et al., 2018). 미국에서는 2005년 학교상담국가모형(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ASCA] National Model)을 통해 사회정의 및 옹호를 학교상담의 주요 과제로 제안하는 등 상담 분야에서 사회정의 및 옹호 개념을 본격적으로 채택하였다(Toporek & Chope, 2006; Toporek et al., 2009). 사회정의 옹호(social justice advocacy)는 내담자 개인이나 집단의 역량 강화(empowerment)를 위한 활동에서부터 상담사의 사회적 활동(social action)에 이르기까지 내담자의 안녕과 복지를 방해하는 외적·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Toporek & Liu, 2001; Toporek et al., 2009).

이후 관련 학자 및 실무자들은 다문화상담과 사회정의상담을 포괄하여 다문화·사회정의상담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 다문화·사회정의상담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특권, 억압, 차별의 관점에서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을 이해할 것을 강조한다(임은미, 2019). 최근 국내에서는 다문화 및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김보라, 오영섭, 2021), 다문화 및 사회정의상담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

하는 연구(신윤정 외, 2021; 이소연 외, 2018; 임은미, 2015; 임은미, 여영기, 2015; 최가희, 2018)를 비롯하여 다문화 및 사회정의 옹호 상담역량의 개념을 소개하는 연구(안혜신, 장유진, 2021; 정안숙, 2015; 민문경 외, 2015) 사회정의 옹호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 연구(임은미, 2016; 2017; 임은미 외, 2018), 다문화 및 사회정의 상담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상담자 교육과정 및 수퍼비전 연구(김은하 외, 2019; 임은미, 2020; 정지선, 2020) 등이 진행되었다. 그 밖에도 수퍼바이지의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수퍼비전 경험(정지영, 임은미, 2021), 사회정의 옹호역량 발달 경험(이재복 외, 2022), 상담사의 자기 옹호 경험(김미진, 권경인, 2022; 김지영, 정은선, 2019), 기업상담자의 사회정의 옹호 경험(김미선, 임은미, 2021) 등 실증적인 연구들 또한 진행되었다.

청소년상담 이외의 다른 현장(예: 기업, 수퍼비전 등)에서는 사회정의 및 옹호 상담과 관련된 논의와 경험적인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기업상담 분야의 연구로, 김미선과 임은미(2021)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기업환경의 특성상 기업상담자들은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옹호 관점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옹호 관점에서 기업상담자들이 경험한 내담자의 문화다양성 및 옹호 경험을 살펴본 결과 기업상담자들은 내담자의 보고를 통해 기업 내 특권, 억압, 차별의 존재와 이로 인한 영향이 실재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상담자들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내담자들을 위한 옹호활동에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으며, 동시에 어려움을 경험했음을 인지하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상담 분야에서는 사회

정의 및 옹호 상담의 관점에서 상담사들의 역할과 역량, 상담사들의 경험을 탐색한 연구들은 극히 적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상담은 전통적인 상담이론에 기초하면서도 효율적인 개입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고, 사회문화적 맥락 및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노성덕, 2018), 개인내적인 개입뿐 아니라 정책, 제도 등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적 맥락에 개입할 것을 강조하는 사회정의상담(Toporek et al., 2009)과 맥을 같이 한다. 국내에서 청소년상담은 공적부조의 개념으로 정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노성덕, 2018). 우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에 근거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설립되었으며, 청소년 안전망(이전 명칭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교육부 훈령 제329호에 근거하여 정부 주도하에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다양한 상담서비스와 위기학생 및 위기상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위(Wee)프로젝트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위(Wee)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상담인력의 경우 학내 구성원들을 위한 상담 업무뿐만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 교육, 교사 연수, 외부인력 관리,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활용 등 다양한 외적 개입을 수행하고 있다(김인규 외, 2021).

이렇듯, 국내 청소년상담 분야에서 청소년 안전망사업, 청소년동반자사업, 위(Wee)프로젝트 등 사회정의상담에서 강조하는 개인 외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청소년상담자들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절대적으

로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 개입은 사회정의 상담 개입과 유사하게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청소년 개인 중심이 아닌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이나 지역사회와의 총체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오경자 외, 2006). 이처럼 청소년상담 및 학교상담은 위기 청소년 등 취약한 내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대변하는 사회정의상담 관점을 취하고 있지만(임은미, 2015), 정작 현장에서는 관련 활동을 상담사의 역할과 책임으로 인식하기보다 전통적인 상담에서 벗어난 주변적인 일 혹은 상담사에게 부적합한 활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김민정, 최한나, 2021; Chung & Bemak, 2012/2020). 이러한 인식은 상담사의 정체성 혼란과 역할갈등으로 이어져 상담사와 내담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한샘, 고은영, 2009; 이소연 외, 2018). 이처럼 관련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의 및 옹호활동으로 인식되지 못했거나 부차적인 활동으로 치부되었던 경우 사회정의 및 옹호활동이자 상담활동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논의는 관련 활동을 수행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으로 활동이 위축되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상담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다양한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마련함으로써 상담사들의 조력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외적 개입전략을 주요 상담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청소년상담자의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인식과 관련 경험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 교육 및 훈련과 수퍼비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청소년상담자의 역량 및 역할을 사회정의 및 옹호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청소년상담자의 사회정의 및 옹호활동을 살펴본 연구로, 장해영(2022)은 위기 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평등, 억압, 소외 등을 초래하는 환경에 개입하기 위해 상담사가 수행하는 일을 옹호활동으로 명명하고,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네 명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의 옹호활동 경험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개인적인 성장배경 혹은 성장과정을 통해 옹호 성향이 발현되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소속된 상담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관의 지역 사회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위기청소년 옹호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옹호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을 사회정의 및 옹호활동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옹호활동 중에도 전통적인 상담사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갈등하면서 개인상담과 수퍼비전, 동료와 상급자의 격려와 지지를 통해 상담의 방향성과 상담사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해영의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상담자들의 활동을 사회정의 및 옹호 관점에서 탐색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동반자의 경우 20대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등(배영광, 권경인, 2018) 청소년상담자의 다수가 초심자인 현실에서 경력자에 비해 심리적 소진에 취약하고 옹호활동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5년 미만 상담경력의 상담사를 연구 참여자에서 제외하여 이들의 경험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장해영의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으로 기관의 인지도와 안정적인 고용을 기반으로 비

교적 유연하게 옹호활동을 지속한 데 비해, 상담현장에는 시간제, 계약직 등 불안정한 고용으로 사회정의 상담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약을 받는 상담사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초심상담사, 시간제상담사, 위클래스 상담사 등 다양한 장면에서 다양한 직위로 활동하는 청소년상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장해영의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상담사들은 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위기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옹호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옹호활동을 경험한 실무자로서 이들의 구체적인 경험뿐 아니라 관련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상담사의 현실에 밀착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청소년동반자, 위클래스 상담사 등 다양한 기관 및 직급의 청소년상담 실무자들의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사회정의(및 옹호)상담의 관점에서 청소년상담자들의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상담자 교육과정에서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교육이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담자들은 현장의 수요로 인해 관련 개입을 실행하고 있지만 이를 사회정의상담으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 있다(김미선, 임은미, 2021; 정지선,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의(및 옹호)상담의 관점에서 국내 청소년상담자들이 실행하고 있는 개입 및 활동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대표적인 관련 개입으로 소개되고 있는 ACA 옹호역량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상담자들은 사회정의상담 및 사회정의상담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 청소년상담자들은 청소년 내담자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사회정의상담에 해당하는 개입을 어떻게 적용하였는가?

방 법

구성주의 근거이론

본 연구에서는 구성주의 근거이론(constructivist grounded theory; Charmaz, 2006/2013)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성주의 근거이론은 Glaser와 Strauss(1967/2011)의 고전적 객관주의 근거이론과 달리 구성주의와 주관주의에 기초한 2세대 근거이론으로 분류된다(Morse et al., 2009/2011). 객관주의 근거이론은 실증주의에 기초하여 객관적 실재가 존재하고, 연구자는 객관적 실재를 대표하는 자료가 본래 지닌 의미를 발견할 뿐이라고 가정한다. 반면, 구성주의 근거이론은 세계에는 다양한 실재가 존재하며, 자료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이고, 이론 또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협업에 의한 산물이라고 가정한다(Charmaz, 2006/2013). 한편, Charmaz는 근거이론의 원리가 사회정의 연구의 분석적 관점을 강화하고 사회정의 연구의 비판적 관점이 근거이론 분석을 촉진할 수 있어 사회정의 연구를 근거이론 연구방법으로 진행하기에 적합하며, 사회정의 연구에 근거이론을 활용할 경우 향후 사회정의 개입과 실천, 정책 등의 이론적 기초를 구축하는 데 용이하다고 보았다(Charmaz,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의 연구에 근거이론이 적합하다는 주장(Charmaz, 2005)과 해석학적 입장과 반영적 관점을 강조한 구성주의 근거이론(Charmaz,

2006/2013)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얻은 인식과 경험에 대한 반영적 관점을 유지하고 연구자의 참여적 역할을 최소화하지 않으면서 분석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자 개인의 관점과 가치, 감정 등을 포함하고자 하였다(Creswell, 2007/2010).

연구 참여자 및 모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전문가 자격을 소지하고, 청소년 상담경력 2년 이상인 청소년상담사를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연구자의 지인과 지인의 소개를 받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Gall et al., 2003)을 활용하였다. 표 1에 제시한 참여자 중 1~5 번, 7번 참여자가 눈덩이 표집을 통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1번, 7번 참여자는 연구자의 지인으로 참여하였다. 2~5번 참여자는 연구자의 지인 소개로 참여하였는데, 연구자가 상담사인 지인들에게 연구 참여 안내문을 전달해서 지인들로부터 소개받는 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나머지 6번, 7~11번 참여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상담심리사 2급 회원이 참여하는 SNS 단체대화방에 본 연구 목적과 절차,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는 참여자 모집 문장을 게시하였고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연구자는 눈덩이 표집과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 의사를 표명한 상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관련 경험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상담기관에서 시행하는 사례(유관기관 연계 및 협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 등)를 들어 사회정의상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관련 경험 여부를 재확인하였다. 이론적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고 판단되어 자료 수집을 중단하기까지 최종적으로 11명의 청소년상담자가 심층 면접에 참여하였다. 눈덩이 표집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상담사는 6명, 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참여자 모집 문장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상담사는 5명이었다. 대면 면접으로 연구에 참여한 상담사는 6명, 온라인 화상회의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면접으로 연구에 참여한 상담사는 5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5.27세(범위=29-50세)였고, 평균 상담경력은 7년 6개월(범위=3년 4개월-23년 5개월)이었다. 11명의 참여자 중 10명은 상담전공 석사학위를 소지하였고, 1명은 심리학전공 학사학위를 소지하였다. 연구에 참여할 당시 참여자들은 청소년 상담사 2급(8명), 청소년상담사 3급(3명), 전문 상담교사 2급(1명), 상담심리사 2급(6명), 상담 심리사 1급(1명), 1급 전문상담사(1명) 등의 자격을 중복해서 보유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클래스, 대학상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었으며, 참여자들의 근무 지역은 서울 7명, 인천·경기 4명, 경남 1명이었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질문지

개인정보 질문지

연구 참여자들은 면접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상담 관련 보유 자격, 상담경력, 근무 기관 및 직급, 근무 지역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번호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상담경력	근무기관	직급	근무지역	보유 자격
1	여성	40대	석사졸업	23년 5개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팀장	경기	청소년상담사 1급, 1급 전문상담사,
2	여성	20대	석사졸업	3년 11개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전일제 상담원	서울	청소년상담사 2급
3	여성	20대	석사졸업	4년 11개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전일제 상담원	서울	청소년상담사 2급
4	여성	30대	석사졸업	6년 8개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시간제 상담원	서울, 경기	청소년상담사 2급, 상담심리사 1급
5	여성	30대	학사졸업	3년 4개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전일제 동반자	인천	청소년상담사 3급, 전문상담교사 2급
6	여성	50대	석사졸업	6년 4개월	고등학교 워클래스	전문 상담사	서울	청소년상담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7	여성	30대	석사졸업	7년 8개월	대학상담센터	전일제 연구원	서울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상담심리사 2급
8	여성	20대	석사졸업	5년 10개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전일제 상담원	경남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상담심리사 2급
9	여성	30대	석사졸업	5년 6개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시간제 상담원	서울	상담심리사 2급
10	여성	20대	석사졸업	3년 6개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시간제 동반자	경기	청소년상담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11	여성	40대	석사졸업	12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시간제 상담원	서울	청소년상담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면접 질문지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심층 면접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먼저 사회정의상담 관련 선행연구 (Fouad et al., 2006; Goodman et al., 2004; Toporek et al., 2009; Mallinckrodt et al., 2014)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질문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연구자들은 Charmaz (2006/2013)가 제시한 심층 면접을 위한 질문 문항 개발 지침을 참고하여 질문지를 개방 종결형 질문, 세부 질문, 종결 질문의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면접 초기에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깊이 성찰하고 생생하게

표 2. 면접 질문 영역 및 내용

영역	면접 질문 내용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학계 일부에서는 내담자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사회정의에 기초한 상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까지 상담자 교육과정은 주로 과학자-실무자 교육모델에 기초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과학자-실무자 교육모델과 달리 과학자-실무자-옹호자 교육모델이 제안하는 것처럼 상담자의 역할에 사회정의 옹호자 역할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정의상담 개입 1: 내담자 역량 강화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정의상담 개입 중 내담자와 함께 내담자의 자기보호 및 자기주장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셨다면, 당시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정의상담 개입 2: 사전 개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정의상담 개입 중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 혹은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내담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담자의 조력자를 파악하고 개입을 위한 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셨다면, 당시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정의상담 개입 3: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정의상담 개입 중 내담자의 문제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내담자가 속한 공동체 및 기관에 알리고 협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셨다면, 당시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정의상담 개입 4: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정의상담 개입 중 내담자가 속한 공동체 및 기관의 문제 때문에 내담자와 같은 문제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 및 기관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셨다면, 당시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정의상담 개입 5: 사전 예방 개입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정의상담 개입 중 내담자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적·환경적 원인들을 파악하고, 기존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문제에 개입하거나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셨다면, 당시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정의상담 개입 6: 사전 예방 개입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정의 개입 중 추후 내담자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적·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는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참여해서 평등한 기회와 적절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셨다면, 당시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닫는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인식과 생각에 변화가 있으셨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질문과 답변을 통해 새롭게 얻게 된 생각이나 전해를 상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묘사할 수 있도록 개방 종결형 질문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참여자들이 구체적인 경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내용, 상황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추가 질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가 심층 면접을 통해 새롭게 인식하였거나 변화된 점을 확인하는 종결 질문을 제시하였다. 면접 질문 문항을 작성한 후 다문화 및 사회정의 상담 관련 연구와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상담전공 교수 2인에게 면접 질문지 내용 및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감수를 받았고, 감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질문지를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정의 상담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 질문 중 사회정의상담 개입에 상담사의 정치적 · 사회적 활동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방형 질문으로 묻는 것 보다는 이러한 사회정의상담의 특징에 대한 참여자의 찬성 혹은 반대 의사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묻는 방식이 참여자의 구체적인 답변을 용이하게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을 수정하였다. 또한 본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 조건을 충족시키는 청소년상담자 2인에게 예비 면접을 실시하여 면접 질문이 수월하게 이해되는지, 면접 진행 과정이 원활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면접 질문에 대한 참여자의 이해를 높이고 질문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면접 질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심층 면접은 대면 면접의 경우 참여자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참여자가 근무하는 기관이나 근무지 인근 회의실 등에서 진행

하였고, 비대면 면접의 경우 화상회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대면 면접 시, 면접을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자가 연구의 목적과 절차, 유의사항, 비밀보장, 참여자의 권리 등을 설명하였고, 참여자는 인적사항 질문지를 작성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면접에 참여하였다. 비대면 면접 시에는 참여자에게 사전에 인적사항 질문지와 연구 참여 동의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회신을 받고, 면접을 진행하였다. 진행자는 면접 질문지를 바탕으로 초기 개방형 질문으로 면접을 시작하였고, 면접이 진행될수록 반구조화된 초점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참여자의 이야기를 정교화하고자 하였다(심지경, 김미애, 2023). 면접은 90분에서 120분가량 진행되었고,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다. 면접 종료 후 필요한 경우 추가 면접을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최종적으로 추가 면접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참여자 개인별로 1회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내용은 연구자가 녹취록으로 전사하였으며, 참여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약어나 숫자로 표기하였다.

연구자들은 Charmaz(2006/2013)의 제안에 따라 초기코딩, 초점코딩, 이론적 코딩 절차로 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초기코딩은 자료의 의미를 규정하는 과정으로, 연구자들은 녹취록을 검토하면서 줄단위로 자료의 의미를 요약하고 이름을 부여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관점과 행위가 가진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 참여자의 특수한 용어를 반영한 내생코드를 사용하였다. 초점코딩 단계에서는 가장 의미 있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초기코드를 선별하여 정렬하면서 자료를 종합, 통합, 조직화하였다. 이론적 코딩은 초점코딩을 통

해 개발한 범주가 이론으로 통합되기 위해 어떻게 서로 연결 가능한지를 개념화하는 것으로, 이 과정은 연구자들이 일관성 있는 분석적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 연구자들은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분석을 거듭하면서 목록이 점차 안정되었고, 연구자 간의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이론적 근거를 완성하였다.

연구자들은 Charmaz(2006/2013)가 제시한 네 가지 평가 기준인 신뢰성(credibility), 독창성(originality), 공명성(resonance), 유용성(usefulness)에 근거하여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분석 결과를 참여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여 참여자들의 경험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독창성 확보를 위해 참여자들이 청소년상담자로서 경험하는 다양한 맥락과 조건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조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공명성 확보를 위해 사회정의상담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상담자 2인에게 도출된 개념과 진술문을 보여준 후 공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용성 확보를 위해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상담전공 교수 1인이 연구자들이 분석 결과가 원자료의 본질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미 간의 연결이 적절한지, 중요한 의미가 추출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자들은 감수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원자료를 재검토하고 분석 결과를 수정하였다.

결과

구성주의 근거이론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8개의 영역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

로,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인식’, ‘사회정의상담 개입 1: 내담자 역량 강화 개입’, ‘사회정의상담 개입 2: 사전 계획 활동’, ‘사회정의상담 개입 3: 협업’, ‘사회정의 개입 4: 환경 개선 개입’, ‘사회정의 개입 5: 문제 예방 개입’, ‘사회정의 개입 6: 자원/정책 개발 개입’, ‘면접을 통한 참여자 인식 변화’로 8개 영역이 도출되었다. 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역 1: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인식

영역 1은 사회정의상담, 즉 청소년 내담자의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심리 내적 원인을 다루는 동시에 내담자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환경적 맥락을 고려하고 이와 관련해서 내담자를 응호하기 위한 활동 및 개입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상담자의 역할과 교육 및 훈련 모델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은 ‘기존 청소년상담체계(예, 청소년안전망사업, 지역사회기반 청소년상담)와의 유사성’, ‘사회정의상담의 적용 가능성’, ‘도전으로서의 사회정의상담’, ‘상담사 역할 확대’, ‘과학자-실무자-응호자 교육 및 훈련 모델로의 변화’ 등 5개의 상위 범주와 14개의 하위 범주로 분류되었다 (표 3 참조). 범주별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청소년상담체계와의 유사성

참여자들은 기존의 청소년상담체계와 관련해서, 청소년안전망운영사업과 지역사회기반 청소년상담 등이 사회정의상담과 유사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사회정의상담과 유사한

표 3.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인식' 범주 및 개념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기존 청소년상담체계와의 유사성	유사한 체계가 존재함	청소년안전망사업과 유사함 지역사회기반 청소년상담과 유사함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익숙함
	유사한 체계의 보완이 필요함	기존 체계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함 체계 보완 없이는 과부하를 초래함
	현장의 요구를 반영함	현장 경험상 필요성을 인정함 청소년 특성상 요구되는 개입임 (심리) 내적 개입만으로는 제한적임 달라진 상담 환경을 반영함
	보조적 접근으로 활용함	자원 활용은 보조적 접근임 지역별 기관별 개입차가 있음
사회정의상담의 적용 가능성	사회 현실을 반영함	사회구조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사회적 지지체계 작동이 어려움
	상담/상담사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함	옹호 인식 부족으로 상담 전문영역 축소가 우려됨 옹호활동을 해야 상담 전문영역을 확보할 수 있음
내담자 특성상 사회정의상담이 필요함	전통적으로 인식함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어려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어려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 청소년은 관련인 개입이 필요함
	역할갈등을 경험함	전통적인 상담과 차이가 있음 상담사로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함 외적 개입은 이중관계 우려가 있음 (심리) 내적 개입 축소를 우려함
	도전으로서의 사회정의상담	외적 개입 교육의 부재는 모순임 현장의 요구에 역할을 고민함 역할 과부하로 소진될 수 있음 상담사의 직업 전문성이 요구됨
	적용에 보완이 필요함	상담 전문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임 상담사 처우와 업무량 개선이 우선임 지역사회자원 활용교육이 필요함 실무자의 단독 개입은 어려움 상위기관의 공감이 우선임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정책화가 가능함

표 3.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인식' 범주 및 개념

(계속)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정치적 · 사회적 활동에 참여함	정치적 · 사회적 활동은 선택적임 법적 · 제도적 변화에 정치적 활동이 필요함
상담사 역할 확대	옹호자 역할을 포함함	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함 인접 분야와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음
과학자-실무자-옹호자 교육 및 훈련 모델로의 변화	옹호자 교육모델이 필요함	현장과 교육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음 현장에서 정체성 혼란을 줄일 수 있음
	옹호자 교육모델을 우려함	상담사에게 사회적 역할을 기대함 옹호자 역할을 교육에 포함할지는 의문임 사회정의상담교육을 받은 상담사가 소수임

상담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상담현장에 사회정의 상담활동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청소년상담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참여자들은 청소년상담 특성상 개인 내적인 접근 중심의 전통적인 상담 외 다양한 외적인 개입을 실행하는데, 상담사로서 정체성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상담 실 안팎으로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으면서 역할 과부하 및 업무 과다를 호소하였다.

상담복지센터 내에서는 CYS-net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게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이 체제로 내담자를 도와요. (청소년안전망사업과 유사함, 참여자 3)

현실적인 보완들이 같이 균형을 맞춰서 갔을 때 실효가 있는데 지금은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을 정책적으로는 만들

어서 실행은 하지만 거기에 수반되어야 하는 보완책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현장에서는 굉장히 과부하고 또 과부하에 걸리다 보니 실제 상담이라는 기본 정체성 유지가 굉장히 위협받고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거죠. (체계 보완 없이는 과부하를 초래함, 참여자 1)

사회정의상담의 적용 가능성

참여자들은 청소년 상담현장에서는 사회정의상담에서 강조하는 개인 외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입을 이미 상담현장에서 보조적 접근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한 참여자는 지역사회자원연계를 통한 기관사업은 보조적 역할이지 주된 접근이 되기는 어려우며, 외적 개입이 보조적인 개입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지역별 ·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내담자의 문제를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식으로 자원을 가져와서 치료하는 것

이 상담자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없으면 상담이 점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함, 참여자 11)

사실 주요 접근으로 채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고요. 지역마다도 다르고, 기관마다도 다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잖아요. 통틀어서. (……) 지역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자원에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각각 다르니 이게 교육이 되고 이걸 주된 접근으로 하기에는 사실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보조적 접근으로 활용함, 참여자 3)

참여자들은 사회적 이슈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사회적 이슈 혹은 사회적 모순이 개인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내담자의 문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사회정의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가족관계, 친족관계 등이 사회적 지지체계로 작동하여 개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점차 개별화되는 사회에서 사회적 지지체계가 작동하기 어렵게 되면서 내담자의 문제에 다각도로 개입하는 사회정의상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전에 지역사회의 지지체계가 씨족사회라던가, 친족관계 범위가 넓었을 때는 그런 위기가 와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요즘 사회는 점점 개개인들이 단절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미비해서 개인의 성장이나 개인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내담자

가 궁극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또 실제로 성장이나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는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사회적 지지체계 작동이 어려움, 참여자 1)

한편, 사회정의상담이 상담 및 상담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참여자도 있었다. 한 참여자는 과학자-실무자 모델 하에서 훈련받지 못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 옹호활동이 상담 영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접 분야 전문가들이 실시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결국 상담 영역이 축소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상담사가 내담자 옹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상담 영역이 보전될 뿐 아니라 상담 및 상담사 역할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보았다.

그냥 상담만 잘하는 걸로는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기에 어려운 구조들도 있고 물론 그게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또 그걸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역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자신들이 전문가라면서 들어오는 것들도 경험해서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옹호활동을 해야 상담 전문영역을 확보할 수 있음, 참여자 7)

참여자들은 사회정의상담이 취약계층 내담자, 예를 들어 아동학대 피해나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내담자, 성소수자 내담자,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내담자에게 더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 신체적 폭력

을 당하거나 홀로 방치되는 등 피해를 당하는 내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쉼터 입소, 생활비 지원 등 자원 연계를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 학교 등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 내담자에게는 사회정의상담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성소수자와 같이 차별받는 환경에 있는 내담자의 경우에도, 소수자의 억압과 차별을 지속시키는 사회 구성원들의 차별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사회정의활동이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다.

개인적으로 성소수자 청소년도 만나봤는데 상담 내적으로도 너무 무지한 상태에서 만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들의 문제는 진짜 상담 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같거든요. (...) 자기가 성소수자라면 그것을 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사회는 그렇게 용납하지 않잖아요. 많이 개선한다고 하지만 사회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상담사로서 뭔가를 제안하거나 이런 활동은 정말로 굉장한 에너지를 들이는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시는 상담센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 참여자 11)

도전으로서의 사회정의상담

참여자들은 청소년이 학대나 학교폭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부모, 교사 등 청소년을 조력할 수 있는 관련인들에게 개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따라서 청소년상담에 사회정의상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동시에 참여자들은 사회정의상담을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관련 활동을 상담사의 역할로 수용하는 데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일부 참여자들은 내담자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개입하는 등 외적 개입을 강조하는 사회정의상담을 전통적인 상담 접근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성장을 방해하고 오히려 문제를 초래하는 환경에서 상담사가 내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역할은 전통적인 상담에서 가정하는 상담사의 가치중립적 태도와 모순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상담에서는 상담실 밖에서 내담자와 맺는 관계를 이중관계 혹은 다중관계로 인식하고 이를 지양하는데, 사회정의상담에서는 상담사가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 상담실 밖 내담자의 현실에 직접 개입하기 때문에 이중관계로 여겨질 수 있어 상담사에게 도전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기존에 가지고 있고 교육받았던 어떤 상담자의 가치, 그다음에 상담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이게 약간 상충되니까 정체성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 예를 들어 내가 조금 더 사회정의 상담기술을 보여준다면 어떤 정체성이나 사회성을 띤 활동을 택할 것이고, 아니다, 그냥 나는 가치중립적인 상담자의 모습으로 조금 더 남겠다고 하면 오히려 그 활동의 범위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상담사로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함, 참여자 8)

역할갈등과 관련해서, 참여자들은 상담실 밖에서 진행하는 개인 외적 개입에 대해서는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훈련받지 못했고, 따라서 참여자들이 청소년상담기관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혼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들은 청소년동반자 등으로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실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의 요구 때문에 상담 실 밖에서 관련인들에게 개입하거나 지역사회 자원을 빌굴하고 연계하는 등의 개입을 진행하면서 상담사 역할이 아니라는 생각에 소진되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개인상담에 집중하고 싶어 청소년 상담기관을 떠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사회정의상담에서 요구하는 상담사의 역할이 과도하기 때문에 업무 과부하나 소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했는데, 사회정의 활동까지 상담사의 역할에 포함하는 것은 이미 격무에 시달리는 상담사들에게는 비현실적 요구로 인식되었다.

사실 처음 제가 담당 역할을 맡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지점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아이 부모님과 연락해야 하나, 왜냐면 아이 상황을 부모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가능한 청소년과 보호자가 서로 오해 없이 소통하고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게 아이한테 중요한데 근데 이게 내 역할이 정말 맞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장의 요구에 역할을 고민함, 참여자 2)

참여자들은 사회정의상담을 현장에 적용하기에 앞서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정의상담에서는 다양

한 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사의 직업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상담사의 직업 전문성과 상담기관의 전문적 위상이 확립되어야 타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도 상담 및 상담사를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같이 협업하는 대상이 되기까지는 센터의 전문성이나 위상이 어느 정도 탄탄하지 않고는 협업이 실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 우리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한 거고,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같이 가지 않고서는 이 모델은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현실과는 굉장히 멀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견도 많겠죠. (상담사의 직업 전문성이 요구됨, 참여자 1)

다수의 참여자들은 사회정의상담을 현실화 하려면 상담사의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청소년동반자의 경우 출장 위주의 업무로 에너지 소모가 상당하며, 출장 외에도 기관 내에서 각종 행정업무와 기관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추가 업무로 느껴지는 사회정의상담을 진행할 여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청소년상담사들은 과도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업무 대비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상담사의 업무량이 현실화되고 처우가 개선되어야 사회정의상담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회정의상담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하는 개입이 주로 활용되는데, 지역사회 내

가용할 만한 인적·물적 자원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사들이 이를 알지 못해 자원을 활용하거나 연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자원 활용 교육,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한다면 사회정의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일단 교육,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구청이나 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상담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육, 이런 자원이 있고 이런 인프라가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담당자 연락처도 문서로 공유가 된다든지 아니면 절차에 대해서 매뉴얼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들. 사실 상담복지센터랑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고 정신보건센터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매뉴얼로도 제작되고 그러면 편하지 않을까. (지역사회자원 활용교육이 필요함, 참여자 4)

한 참여자는 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사회정의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야 실무자의 실질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 상담기관은 공공기관이 다수이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을 교부하는 상위기관이 있는데, 이 상위기관에서 사회정의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으면 예산을 교부받지 못하고 기획 단계에서 멈추게 된다. 또한 공공상담기관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상향식 접근으로 시행되기보다 국민적 공감을 얻은 사안이 정책화되고 이러한 정책에 기초한 사업을 상위기관 지시로 실행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자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해당 사업이 사회적 관심을 얻어야 정책화되고 상담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청소년기관은 국가 예산을 받는 공적인 성격을 띠는 기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교부하는 상위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위기관도 사회옹호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실효성에 대해 공감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관의 관리자와 실무자인 제가 거기에서 힘을 합쳐서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해도 상위기관 혹은 예산을 교부하는 기관에서 이것들을 공감하지 않으면 (...) 그 단계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상위기관의 공감이 우선임, 참여자 8)

사회정의상담 개입 중 가장 적극적인 활동으로 상담사의 정치적·사회적 활동 참여를 들 수 있는데, 참여자들은 정치적·사회적 활동은 상담사 개인의 가치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한 참여자는 상담실에서 만나는 내담자에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더 비중을 두기는 어렵지만 사회적 안전이 있다면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른 참여자는 국민청원도 법적·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는 일종의 정치적

활동이고, 청소년동반자 처우 개선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보면서 상담사도 정치적 활동이 가능하고 이러한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일상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저는 이 활동적인 부분이 상담에서 이 아이를 케어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만나는 아이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편이라서 이 아이에게 관심을 두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활동에 비중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관심을 두고 그런 안전이 있을 때 협력해야 된다, 주축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 · 사회적 활동은 선택적임, 참여자 2)

사회정의상담도 청원도 자꾸 회자되고 얘기되면서 활성화되는 거라 그게 정치적, 사회적이라는 용어라서 그렇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 정치나 사회에 관심이 없어도 국민청원이라는 게 위낙 어느 순간 활성화되니까 지난번에도 YC 관련한 청원도 올라오고 그런 거 보면 사실은 되게 대단하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분이 올리고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상담도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또 뭔가를 할 수 있겠고 그게 되든 안 되든 그런 수단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법적 · 제도적 변화에 정치적 활동이 필요함, 참여자 11)

상담사 역할 확대

한 참여자는 사회정의 옹호자 역할을 포함하여 상담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내담자를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상담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상담사가 상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옹호자 역할을 수행한다면 사회복지 등 인접 분야와 차별성을 떨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저는 (사회정의/옹호자 역할 등 상담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주요 접근이라도 내담자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심리상담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굉장히 전문적이고 고도의 작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상담에 관련된 국가 자격증들은 사회복지나 여러 다른 학문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 이게 우리만의 영역이라는 걸 잘 보여주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인접 분야와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음, 참여자 7)

과학자-실무자-옹호자 교육및훈련 모델로의 변화

국내외 상담사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과학자-실무자 모델을 바탕으로 상담사를 양성해왔는데(방기연, 2022; 안현의, 2003), 사회정의상담에서는 사회정의 옹호자 역할을 추가한 과학자-실무자-옹호자 교육모델을 제안한다. 참여자들은 과학자-실무자-옹호자 교육모델과 관련해서 옹호자 교육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우려된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다. 예를 들

어, 청소년상담의 특성상 현장에서 외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가 있는데, 상담사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정의 옹호활동에 해당하는 외적 개입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 이러한 개입을 하는 상담사들이 교육과정과 상담현장의 간극을 느끼고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개인 내적인 접근 중심의 전통적인 상담을 지향하는 상담사가 상담현장에서 겪게 되는 정체성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옹호자 교육모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의학교육과정에서는 의과대학생들에게 전문직 종사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교육하는데(권복규 외, 2022), 상담 분야에서도 상담사의 사회적 역할을 포함한 옹호자 교육모델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과학자-실무자-옹호자 교육모델로의 변화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한 참여자는 사회복지와의 차별성을 위해 내적 개입이 강조되는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다른 참여자는 옹호자 교육을 받은 상담사나 수퍼바이저가 소수라서 옹호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게 교육에서 진짜 잘 다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역할을 하면서 상담자가 계속 혼란을 느끼거나 자기의 정체성, 내가 뭐 하는 거지 현장에서 현타를 느끼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그러지 않은 안전한 세팅으로 도망을 가거나 그러니까 그런 연결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세팅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아예 연결만 해주고 상담하지 않는, 상담이 훨씬 어렵거든요. (현장에서 정체성 혼란을 줄일 수 있음, 참여자 7)

영역 2부터 영역 7까지는 청소년 내담자의 문제를 대표적인 사회정의상담 개입인 ACA 옹호역량으로 다루었던 경험을 의미한다. ACA 옹호역량은 내담자가 관여하는 정도(내담자가 상담자와 함께하는 옹호,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신하는 옹호)와 상담자가 개입하는 수준(개인 수준, 기관/지역사회 수준, 사회/공공 수준)에 따라 여섯 가지 개입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Toporek et al., 2009).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의 여섯 가지 개입 유형은 내담자 역량 강화 개입(영역 2), 사전 계획 활동(영역 3), 협업(영역 4), 환경 개선 개입(영역 5), 문제 예방 개입(영역 6), 자원/정책 개발 개입(영역 7)으로 나타났다.

영역 2: 내담자 역량 강화 개입

영역 2에는 ACA 옹호역량 중 첫 번째 개입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영역 2에는 참여자들이 사회정의 관점에서 내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경험을 포함하고 있고, 1개의 상위범주와 6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어 있다(표 4 참조). 범주별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보호/자기주장 역량을 강화함

참여자들은 청소년 내담자들이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어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개인 내적인 접근만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이 경우,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고 문제의 원인이 청소년 내담자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취약한 환경에 있는 경우 과도한 자기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입하였다. 또한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표 4. '내담자 역량 강화 개입' 범주 및 개념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자기보호/자기주장 역량을 강화함	내담자의 강점을 파악하고 활용함	문제 원인의 외부적 요인을 확인함
		내담자의 강점을 파악함
		자기보호를 위한 자기표현을 연습함
		고립감을 해소할 관계 형성을 지지함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 개입함	내담자의 요청으로 개입함
		이후 대처를 위해 개입함
	자기주장/표현으로 문제가 개선됨	문제상황임을 인지하고 대처함
		자기주장으로 불편감이 해소됨
		자기표현으로 환경이 변화함
	상담자 요인으로 개입이 어려움	내적 · 외적 개입 정도를 고민함
		프리랜서로 추가 개입은 어려움
	내담자 특성상 개입이 어려움	위축된 내담자를 돋기 어려움
		관련인의 협조가 없으면 어려움
	역량 강화 개입에 보완이 필요함	현장 개입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상담 개입을 위한 제도화가 우선임
		자기주장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함

활용하는 개입 과정을 통해 내담자가 현재의 문제상황과 이후의 상황까지 대처하도록 개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내담자들은 문제상황 및 문제상황의 원인을 인지하고 대처하거나 적절한 자기표현이나 자기주장으로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할 뿐 아니라 내담자의 환경이 변화하는 경험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랬을 때는 자기보호를 할 수 있도록 먼저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내담자가 상대한테 선을 넘은 부분에 있어서 알려주고 사과를 받아낼 게 있으면 받아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선 넘지 않도록 이 애

기를 나한테 하는 거 불쾌하다고 딱 얘기를 하게 했어요. (자기보호를 위한 자기표현을 연습함, 참여자 5)

실제로 아빠가 좀 심하게 때렸을 때 내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두 번 정도 했는데 아빠를 신고했다는 게 죄책감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아빠가 나쁜 행동을 하면 그건 나쁜 행동이고 처벌받는다, 저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죄책감에서 분리가 돼서 내담자가 아빠를 신고했을 때도 힘들어하거나 그런 게 좀 적었어요. (문제 상황임을 인지하고 대처함, 참여자 10)

한편, 참여자들은 개입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내적 개입과 외적 개입을 어떻게 적정 비율로 진행해야 할지 상담자의 역량이나 여건으로 인해 개입에 한계를 느끼고 고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내담자 특성상 내담자와 내담자 관련인들의 협조가 부족한 경우 개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했는데, 내담자가 매우 위축되어 있거나 부모, 교사 등 관련인들이 내담자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상담사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여자는 기관의 전일제 상담사가 아닌 프리랜서 상담사가 외적 개입을 하기에는 보수가 낮고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실 밖 개입이나 시간외근무는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개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자기주장훈련 등을 상담에 적용하기 위한 개입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개입이 용이하도록 피해 학생의 자기주장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등 관련 제도가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외부 자원을 연계하는 활동이 너무 상담의 중심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고민이 들 것 같아요. 적절한 비율이 얼마나 되나, 다른 자원 연계나 사회적인 활동과 개인 내적인 부분을 탐색하고 해소하고 머무르고 이런 과정의 비율을 어떻게 할지 고민될 것 같아요. (내적·외적 개입 정도를 고민함, 참여자 9)

아무래도 학교 사건이 터질 때 학생들

이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있죠. 그래서 교사들의 어떤 인식, 뭐랄까요, 인식의 변화이기는 한데 어떤 인식의 변화냐면 대를 위해서는 소가 좀 희생되어 도 괜찮다든가 약간 그런 인식은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자기주장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함, 참여자 6)

영역 3: 사전 계획 활동

영역 3은 ACA 옹호역량 중 두 번째 개입에 해당하며, 내담자에게 필요한 자원에 내담자 스스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개입을 실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상담자의 사전 계획 활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청소년 내담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거나 조력자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사회정의에 기초한 개입방안을 사전에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 3에는 ‘사회정의 개입 계획을 수립함’ 등 1개의 상위범주와 6개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어 있다. 표 5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고, 범주별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정의 개입 계획을 수립함

참여자들은 청소년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관 차원에서 관내 유관기관들이 협업방안을 논의하는 통합 사례회의를 개최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새로운 조력자를 파악하거나 가능한 지원을 안내하는 등 외적 개입을 위한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조력자를 사전에 파악함’과 관련해서, 한 참여자는 내담자

표 5. '사전 계획 활동' 범주 및 개념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사회정의 개입 계획을 수립함	자원/조력자를 사전에 파악함	사례개념화를 통해 계획을 수립함
		지역사회자원을 사전에 파악함
		분야별 전문가 참여로 지원을 검토함
		통합사회회의에서 내담자를 대변함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을 준비함
	내담자 특성상 상담자가 대신함	새로운 조력자를 파악하고 연결함
		청소년 내담자라서 보호자 지원을 안내함
		피해 상황에서 가능한 지원을 안내함
		청소년이 지원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움
		외적 개입의 요구가 있음
상담기관 여건상 개입이 어려움	내담자에게 도움됨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함
		예상되는 위기상황을 대비함
		정보 제공만으로도 도움받음
		사회적 신뢰를 회복함
		지역사회자원 파악이 어려움
	내담자 특성상 개입이 어려움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어려움
		중복되는 기관사업이 많음
		외적 개입 우선으로 내적 개입이 부족함
		근로시간을 초과한 업무량으로 힘들었음
		상담사 역할갈등으로 힘들었음
사전 활동 개입에 보완이 필요함	내담자에게 도움됨	보호자의 비협조로 개입이 어려움
		내담자의 자율성 저해를 우려함
		상담사의 전문성이 우선임
		보호자 상담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개입을 위한 사전교육이 필요함
	내담자 특성상 개입이 어려움	상담사 근로시간 책정이 현실화되어야 함
		상담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내담자와 상담사 간의 협력성이 부족함
		내담자와 상담사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함
		내담자와 상담사 간의 신뢰가 부족함

가 주거 문제를 호소하자 기관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한 결과 구청에

서 시행하는 주거지원사업을 안내받았고, 이 후 내담자와 함께 구청에 방문해서 주거지원

사업을 알아보았다. 다른 참여자는 내담자의 문제가 부의 학대로 발생하였고 부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담자의 모와 주거 문제를 상의했는데, 외국인인 모가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자 모와 함께 부동산에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모에게 다문화가정 지원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 내담자의 보호자에게 지원 정보를 제공하였다. ‘내담자 특성상 상담자가 대신함’으로는 위기청소년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예상되는 위기상황을 대비해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신하여 외적 개입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활동만으로도 내담자에게 도움됨’과 관련해서는 내담자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내담자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했다거나 내담자와 함께 자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지역사회와 조력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을 인식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영어 과외 선생님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젊으신 분 같아서 아이에게 좋은 멘토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활하면서 과외 선생님께도 계속 물어보면서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학교 상담실에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집에서 만나는 과외 선생님과도 의논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친구 가까이에서 부모님 대신 조력자가 돼주시는 사람을 파악해서 필요할 때는 연락도 할 수 있게 그분이 저도 알아두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새로운 조력자를 파악하고

연결함, 참여자 6)

사회에서 자기를 돋는 시스템이 가동되는,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다,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건강하게 기능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저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함, 참여자 1)

참여자들은 ‘상담기관 여전상 개입이 어려움’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상담자가 구조화된 상담실을 벗어나 외부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거나,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소극적일 때는 지원정보를 파악하고 확보하기 어렵고, 협업기관에 중복되는 사업이 많거나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는 경우에도 개입이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외적 개입을 우선하면서 내적 개입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거나 근로시간을 초과한 과도한 업무량과 상담사로서 외적 개입에 대한 역할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내담자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개입이 진행되기 어렵고, 내담자가 지원에 의존할 때 내담자의 자율성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였다.

그럴 때 뭐랄까 구청에서 딱히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자꾸 일이니까. 제가 연락하면 일이고 그러니까 좀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뒤로 밀리고 이런 부분들이 하다 보면 저도 좀 많이 지치고 이렇게 해서 소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내가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

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해는 돼요. 그분들도 워낙 일이 많으시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어려움, 참여자 4)

그러니까 대상자로 아예 지정되어 있으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느낀 게 오히려 그런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당연한 것으로. (……) 본인 스스로가 조금 고민하지 않는 걸 볼 때는 이렇게 지원을 계속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내 담자의 자율성 저해를 우려함, 참여자 11)

따라서 이러한 개입이 현실화되려면 상담사의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보호자 상담 등 관련인 개입을 위한 교육이나 외적 개입 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사전 활동 개입에 보완이 필요함'). 한 참여자는 청소년동반자들이 외적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상담 및 상담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매뉴얼상으로는 여러 가지 다, 지역사회 개입, 실행위원회 참가, 엄청나게 많지만 시간은 딱 심리상담하는 것처럼 성인상담, 개인상담 하는 것처럼 근로시간을 책정해서 제대로 개입할 수도 없어요. 업무 성격은 심리상담과 사회복지자를 합쳐 놓고 근로시간은 순수하게 심리상담처럼 책정한 거 자체가 너무 합의가 충

분히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상담사 근로시간 책정이 현실화되어야 함, 참여자 9)

영역 4: 협업

영역 4는 ACA 옹호역량 중 세 번째 개입에 해당하며,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 내담자에게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거나 내담자의 조력자를 통해 개입하는 등 협업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한 경험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함', '조력자를 통해 지원함' 등 2개의 상위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영역 4의 내용은 표 6에 기술하였고, 범주별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함

참여자들은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내담자 개인의 심리적 · 병리적 문제를 다를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이나 기회를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등의 개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다수가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계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청소년안전망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 위기청소년 사례에 개입하게 된다. 해당 부서가 위기청소년 사례를 관내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실행위원회 혹은 실무위원회에 발의하면 위원회에서는 기관별 지원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는데, 이렇게 논의된 결과는 내담자에게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내담자가 원하는 경우 실제 연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개입에는 사안에 따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표 6. '협업' 범주 및 개념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내담자가 원하는 자원을 제공함	실행위원회를 거쳐 자원을 연계함 한 사례에 다수의 유관기관이 협업함 관내 학교연계사업을 진행함 내담자를 보호하면서 독립을 지원함 내담자의 의존성을 고려하면서 개입함 내담자와 논의하며 서비스를 개선함 기관 협조로 위기 내담자에게 집중함 외부 전문가의 정보 제공으로 도움받음 프로그램 참여만으로도 도움받음
	심리적 측면 외에도 다양한 도움을 받음	내담자의 안전과 의식주를 지원받음 내담자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참여자와 교류하면서 관계가 확장됨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함	연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음	지역사회자원 파악이 어려움 위기 시 사전 계획이 어려움 지원 요청에도 도움받지 못함 유관기관과의 소통이 어려움 연계 이후 후속관리가 어려움 청소년 내담자가 시설 입소를 거부함 보호자의 비협조로 연계하지 못함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파악이 중요함 지원제도 정비가 필요함 상담기관의 업무 효율화가 우선임 기관의 자원연계 매뉴얼이 필요함 사회정의 개입 사전교육이 필요함 사회이슈 대응 지침을 개발/배포함 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함 상담사 역할을 확장해야 함
	상담기관/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전 상담자와 소통함 인접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함 청소년 관련인 상담/교육을 진행함 청소년 특성상 필요한 개입임
조력자를 통해 지원함	내담자 관련인을 통해 개입함	청소년은 관련인 개입이 효과적임 내담자의 심리 행동 문제가 감소함 내담자와 관련인 관계가 개선됨
	내담자의 문제가 개선됨	부모상담이 어려울 수 있음 유관기관의 비협조로 어려움
	관련인의 비협조로 개입이 어려움	보호자 협조가 필수적임 학교상담 인식 개선이 필요함
	관련인/기관의 협조가 필요함	

학교, 경찰 등 다수의 유관기관이 협업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서비스에 한계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지역사회 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하는 실행위원회라는 회의가 있어요. 거기에 이 친구 사례를 발의해요.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다양한 기관에서 오세요. (……) 참석한 기관들에서 “어, 저희는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혹은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를 같이 한번 논의하는 거죠. (실행위원회를 거쳐 자원을 연계함, 참여자 2)

또한 참여자들은 다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집단상담, 또래상담사업 등 관내 학교연계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학교와 연계하여 내담자들을 지원하였다. 한 참여자는 내담자가 위기청소년으로 가족과의 분리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쉼터 등 일시보호를 우선 제공하면서 학교,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내담자가 실질적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내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 하되 내담자의 의존성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내담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참여자는 한 사례에 다수의 기관이 지원하면서 내담자가 감당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다양한 중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담자와 함께 논의하고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보고하였다.

교육지원청에서 공모를 받아서 @@구에 있는 초중고, 각 한 학교와 협약을 맺고 이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뭔가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케어가 안 되거나 심리적으로 정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분포된 학년이 있을 수 있어요. (……) 그런 학년이 한 학년 있었는데 저희가 그 학년을 같이 하면서 저희가 그때 사업했던 방식으로 그 학년 전체에 예방 차원에서 두 시간짜리 교육을 다 돌렸어요. (관내 학교연계사업을 진행함, 참여자 2)

참여자들은 자원 연계 중심의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에게 심리적 측면 외에도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감이 심했던 내담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행위원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법률 정보를 제공받아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집단상담, 예방교육 등 학교연계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접하고 새로운 대처 방법을 알게 되는 등 프로그램 참여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빚을 물려받지 않아도 되고 네가 원하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을 때 말 그대로 그 불안감이 감소한 거예요. 사실 이 친구가 갖지 않아도 되는 심리적 불안감이잖아요. (……) 추측하건대 본인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불안감이 없어졌을 때 이 친구가 다른 일상에서 본인이 진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데 기울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는 갖는 거죠. (외부 전문가의 정보 제공으로 도움받음, 참여자 2)

한편, 참여자들은 내담자에게 연계할 만한 지역사회자원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고위기 내담자에게 사전 계획 없이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때, 개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 지원을 요청해도 진척이 되지 않거나 자원연계 이후 후속 관리가 어려운 점 등을 개입의 어려움으로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참여자들은 단체생활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연계한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내담자가 거부하거나, 내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려고 해도 부모의 비협조 때문에 개입을 실행하지 못했던 어려움 등을 보고하였다.

우선 이걸 다 사람들에게 알아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알려주지 않거든요. 어딘가에 들어간다고 해서 목록이 쭉 뜨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지역에서 경력이 많이 쌓이면서 알음알음 듣는 것들이 많아요. (……) 그러다 보니 이런 서비스를, 지역 내 서비스를 매칭하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담자한테는 사실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지역사회자원 파악이 어려움, 참여자 2)

참여자들은 자원연계 중심의 개입을 통해 청소년 내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담기관 및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상담사가 사전에 지역사회자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구청 등 유관기관

의 복지지원인력 확충, 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등의 지원제도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상담기관의 업무 효율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과다한 행정업무가 줄어야 실질적인 개입을 위한 시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사례관리자의 신고 등 초기 대응을 포함한 기관의 자원연계 매뉴얼이 필요하며, 자원연계를 포함한 사회정의 개입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사회적 이슈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활동 또한 기관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상담 활동 초기에는 자원연계를 상담사 고유의 업무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상담사가 자원연계 및 기관과의 소통을 상담사의 역할로 인식하고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내담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레인지하는 역할을 차라리 제가 배웠다면 그런 자원을, 어떤 자원을 어디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걸 좀 알고 있었다면 어레인지하는 것이 오히려 편해지고 협업하는 입장에서도 더 명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 내담자 입장에서 내담자가 가장 피해받지 않고 내담자에게 좋은 쪽으로 기관의 역할이나 자원 활용에 대해 알 수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사회정의 개입 사전 교육이 필요함, 참여자 10)

조력자를 통해 지원함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파악하고 연계하는 것 외에도 청소년 관련인 등 조력자를 통해 지원했다고 보고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내담자를 이전에 담당했던 상담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인접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충동조절 관련 약물치료를 연계하거나, 부모상담, 부모교육, 교사상담 등 청소년 관련인들에게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면서 관련인들이 청소년 내담자를 측면 지원 할 수 있도록 개입하였다. 이처럼 참여자들이 관련인 등 조력자를 통해 개입한 이유는, 청소년 시기가 환경의 영향을 더 받는 시기이고, 부모, 교사 등 관련인들에게 개입하는 것이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은 훨씬 개입할 여지가 많고 가용해요. 대학생 내담자는 부모한테 연락하겠다, 그러면 거부감을 많이 보이거든요. 청소년은 훨씬 더 부모나 학교나 이런 데 개입하는 게 편하고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아이들한테는 내적인 개입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환경에 개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고 차라리 부모나 선생님과의 소통 이런 데 개입하는 게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청소년은 관련인 개입이 효과적임, 참여자 4)

참여자들은 개입 효과로, 내담자의 심리적·행동적 문제가 개선되거나 담임교사, 학우 등 관련인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선생님이) 아이가 늘 문제고 저 아이 부모는 상종 못 할 부모라고 그랬지만 나름 그 부모가 처절하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한다면 측은지심이 생기고 대안이 좀 나오지 않겠어요? 아이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너! 이러는 게 아니라 그전에 관심을 가져준다거나 선생님이 아이를 지지자로서 뭔가 응호해준다면 다른 아이들도 이 아이한테는 좀 덜하죠. (내담자와 관련인 관계가 개선됨, 참여자 1)

개입 당시 참여자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내담자의 거부로 부모상담이 어렵다거나 방어적인 부모와의 소통이 힘들었으며, 학교 등 유관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진행이 어려웠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참여자들은 조력자를 통한 개입의 경우에도 보호자를 비롯한 관련인과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고, 특히 비밀보장 등 학교 관련인들의 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기관들도 업무가 너무 가중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아니면 구청이나 이런 데 계속 대기가 있고 업무가 많으시고. 그런데 계속 연락해서 물어보고 됐는지 확인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힘드시고 언짢아하시고 그러면 거기서 오는 상처, 그런 부분들, 소진과 어떤 자원이 열악해서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관기관의 비협조로 어려움, 참여자 4)

영역 5: 환경 개선 개입

영역 5는 ACA 옹호역량 중 네 번째 개입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이 영역에는 공동체 및 기관의 문제 때문에 학교폭력 등 내담자가 주로 호소해왔던 문제들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자들이 학교 등 공동체 및 기관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는 등 사회정의 관점에서 상담을 진행했던 경험들이 포함되어 있다. ‘공동체 인식 개선 활동’, ‘공동체 교육 환경 개선 활동’, ‘지원사업 절차 개선 필요성 인식’, ‘공동체 인식 개선 필요성 인식’ 등 4개의 상위범주와 14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영역 5의 내용은 표 7에 기술하였고, 범주 별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공동체 인식 개선 활동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재학하는 학교 등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적 개입을 진행했는데, 내담자가 재학하는 학교에 파견되어 재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교육이나 집단상담을 실시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등 문제행동에 대한 재학생들의 인식이 증가했는데, 이전에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문제행동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2회씩 예방교육을 받다 보니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 그런 인식이 높아지면서 학교폭력 수위가 낮아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 내담자 중에도 자기가 지금 좀 죽고 싶어 하는 걸 친구가 알아서 죽지 말라고 위로해줬는데 그 말이 너무 위로된다고 하기도 하

고 그런 내담자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변화가 느껴지긴 한 것 같아요. (예방교육으로 문제 가 감소됨, 참여자 10)

한편, 참여자들은 인식 개선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교 등 공동체 사정으로 어려움도 경험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 부모 등 관련인에 대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었고, 학교에 파견되어 한 학급 전원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한 경우 학업 손실에 대한 우려로 항의를 받았던 것을 어려움으로 보고하였다.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빼서 6주인가 8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왜 수업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그런 걸 하냐, 이런 항의를 해서 담임 선생님이 견디기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것보다 학업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 이게 우리 아이한테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괜히 그런 애랑 같은 반이 돼서 우리 애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잖아요. (집단 상담 실시로 학업 손실을 우려함, 참여자 7)

공동체 교육환경 개선 활동

내담자가 속한 지역 공동체의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한 개입으로, 상담사와 상담기관, 지역사회와 협조로 지역사회에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었다. 한 참여자는 지역사회 청소년 교

표 7. '환경 개선 개입' 범주 및 개념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학교파견 예방교육/인권교육을 실시함
		학교파견 집단상담을 실시함
	공동체 구성원 인식을 개선함	관내학교 아웃리치를 진행함
		학폭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함
		통합사례회의 참여자들을 코칭함
공동체 인식 개선 활동	예방교육으로 문제를 다룸	예방교육으로 문제를 인식함
		예방교육으로 문제가 감소됨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관련인 대상 개입으로 업무가 가중됨
	공동체 여건상 개입이 어려움	상담 참여인원이 많아 효과가 감소됨
		학교파견 시 외부 노출을 우려함
		집단상담 실시로 학업 손실을 우려함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이 필요함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이 필요했음
	학업중단 위기학생 상담을 제공함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숙려상담을 제공함
공동체 교육환경 개선 활동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환경이 마련됨	기관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음
		학업중단 숙려상담이 지속 가능해짐
		등교거부학생 참여 유도가 어려움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이 없어 힘들었음
	내담자/기관 여건상 개입이 어려움	기관에 환경 개선을 제안하기 어려움
		아웃리치는 실제 성과가 적은 편임
		사업/예산 확보 활동이 비윤리적으로 느껴짐
	절차대로 지원받지 못함	대상자인데 자원연계가 되지 않음
		위원회 개입으로 지원받음
지원사업 절차 개선 필요성 인식	지원절차 개선이 필요함	공식적인 개선 요청이 필요함
		외부사업이면 연계도 제한적임
	지원사업 홍보가 우선임	청소년지원제도 홍보가 필요함
		체계적인 상담사업 홍보가 필요함
	지원사업 필요성을 공동체에 알림	일반학생 심리평가지원을 기관에 전의함
		기관 프로그램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함
공동체 인식 개선 필요성 인식	지원 제공기관을 공동체에 알림	행사로 기관을 알리면 필요시 도움받음
		심리평가지원 전의에 공감을 얻지 못함
	지원사업 필요성을 설득하기 어려움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어려움
		기관에 갈등을 야기할 사안을 요구하기 어려움
	관리자의 협조가 필요함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자의 공감이 우선임

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학업중단 숙려상담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개입으로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내년도 사업 예산을 지급받아 학업중단 위기학생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여건상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상담사가 교육환경 등 공동체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기관의 관리자들이 이를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하여 사업 시행이 어렵거나 예산 문제로 결렬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에서 새로운 사업 시행 및 예산 확보를 이유로 상담사들이 업무 와 무관한 행사 등에 사적으로 동원되는 경우 비윤리적으로 느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받아서 일 년간 했는데 학교에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 친구들이 학교 수업일수를 채워서 유급을 당하지 않고 졸업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위기학생들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학교 측에서는 사실 너무 좋아해서 교육청에서는 계속 예산을 준다고 했었어요. (학업중단 숙려상담이 지속 가능해짐, 참여자 10)

일단 그렇게 되려면 그 당사자와 그 기관 담당자와 유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고 각자의 본업 이외의 업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상담을 맡기셨으면 기관에서 협조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들을 좀 더 발굴해서 우리 센터에 보내주시려면 기관에서 이런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마인드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런 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기관에 환경 개선을 제안하기 어려움, 참여자 11)

지원사업 절차 개선 필요성 인식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해 외적 개입을 진행하는 사례로, 참여자들은 절차상의 문제로 지원사업이 대상자에게 적절히 연계되지 못하는 사례를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청소년 지원사업 담당자의 사업정보 미숙지로 내담자가 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기 어려워서 기관을 조력하는 위원회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은 사업기관의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기관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제도 및 상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구에서도 국가나 시에서 받는 사업이라 사실 이용하면 되게 좋은 사업인데 안내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재작년, 작년 이렇게 담당했었는데 재작년에는 거의 다섯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나 이런 지역 내에서는 되게 어려운 친구가 많거든요. (……)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대상사업은 동주민센터에서 잘 찾아서 해주시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는 몇 가지 없는 데 그건 홍보가 사실 잘되지는 않더라구요. (청소년 지원제도 홍보가 필요함, 참여자 3)

공동체 인식 개선 필요성 인식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 내담자에게 필요한

연계자원이나 지원사업이 마련되도록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의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을 얻으려고 했으나 진행이 어려웠던 사례를 보고하였다. 한 참여자는 정서행동 문제를 보이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종합심리평가가 필요했는데, 특수교육대상자나 학교 폭력 사례가 아닌 경우라서 심리평가를 지원받기 어려웠다고 보고하였다. 당시 참여자의 지역 내에서는 해당 학생처럼 일반학생 대상 심리평가 지원사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참여자가 기관에 사업을 건의했지만, 기관의 인식 부족으로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이죠. 제가 기관에 의뢰하면서 예를 들어 이런 정서적인 문제로 종합심리

평가는 아니더라도 심리평가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심리평가지원 전의에 공감을 얻지 못함, 참여자 8)

영역 6: 문제 예방 개입

영역 6은 ACA 옹호역량의 다섯 번째 개입에 해당하며, 내담자의 문제를 초래하는 사회적 · 환경적 원인을 파악하고 물적 ·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담사가 개입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문제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안내함', '(문제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함' 등 2개의 상위범주와 5개의 하위범주가 도출

표 8. '문제 예방 개입' 범주 및 개념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문제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안내함	대상자/관련인에게 지원정보를 제공함	학교 파견 시 홍보물을 제공함 상담/상담기관 정보를 제공함 교사 위기상담지침을 제공함 학교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을 홍보함 학부모에게 학교밖청소년지원정보를 제공함 고위험군 청소년 지원정보를 안내함 상담사 대상 지원정보활용교육을 진행함
(문제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함	공동체 여건상 개입이 어려움	교사의 고충에 응대하기 어려움 형식적인 홍보를 우려함
	관련인 지원이 필요함	관련인 상담연계프로그램이 필요함 학생상담자원봉사자가 집단상담에 투입됨 봉사자 참여로 프로그램이 강화됨 프로그램 참여학생 만족도가 높음
	기준 지원인력으로 예방교육을 개선함	봉사자에게 적정 보상 지급이 필요함
	지원인력 쳐우 개선이 필요함	

되었고, 범주별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안내함

참여자들은 학교 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사, 학부모 등 교내 구성원들이 필요시 청소년을 조력할 수 있도록 상담 홍보물을 제공하거나 상담 및 상담기관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교사에게 위기 학생상담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거나 학부모에게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 관련인들에게 지역사회자원을 안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 등 관련인의 고충에 응대하기 어렵다거나 프로그램 홍보가 형식적으로 그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등 개입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학교밖청소년들, 저는 학교밖지원센터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학교밖지원센터가 지원을 가장 많이 해주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영상 강의도 해주고 교재도 주고 학원도 다니게 해주고 본인의 의욕만 있으면 많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정보를 생각만큼 모르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시니까 이런 걸 연계해드린 경험도 있고 (……) 이런 제도적인 부분은 저나 학교 선생님이 알려줘야 알 수 있거든요. (학부모에게 학교밖청소년 지원정보를 제공함, 참여자 9)

(문제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함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정의 관점에서 사전 예방적 개입을 진행하였다. 한 참여자는 ‘영역 5 : 환경 개선 개

입’ 중 하나인 ‘공동체 인식 개선 활동’으로 학교에 파견되어 집단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단상담 참여인원이 많아 상담 효과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입의 어려움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사회자원에 포함될 수 있는 상담 지원인력인 학생상담봉사자를 집단상담 진행자로 투입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봉사자들의 참여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봉사자들에게 적정 보상 지급 등 처우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학생상담봉사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학교에서 집단상담을 진행할 사람을 선발해요. 그래서 70시간인가 집단상담이라는 상담교육을 받으시고 그분들을 학교에 집단상담을 진행하게 투입해요. 파견을 하는 거죠. (……) 만약에 다문화나 차별이나 이런 주제로 이분들이 와서 집단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인원이 충분해서 한 반을 세 개 그룹으로 나눠서 소수의 학생으로 집단을 구성하면 그런 주제로 좀 더 효율적으로 집단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학생상담봉사자가 집단상담에 투입됨, 참여자 6)

영역 7: 자원/정책 개발 개입

영역 7은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요구되는 새로운 물적·인적 자원을 발굴하거나 개발한 경험, 그리고 청소년상담 관련 제도나 정책을 마련

표 9. '자원/정책 개발 개입' 범주 및 개념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지역사회자원을 개발함	자원 개발 활동을 실시함	새로운 위기청소년지원단체를 발굴함 연구결과 및 상담사례를 공유함
	새로운 자원을 확보함	지원단 발굴로 청소년 후원이 이루어짐 연구결과 지역사회 문화시설이 개소됨
	사업 확장으로 어려움을 겪음	지원단 참여기관 발굴/관리가 어려움 사업 확장으로 업무가 가중됨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함	사업 담당자로 상담사 정체성을 고민함 상담전문인력 보충이 필요함
	상담/상담사업을 대외적으로 알림	기관장 등이 시군구회의에서 발언함 사업보고회나 공청회를 진행함
	사업 결과로 청소년 지원환경이 마련됨	서비스 구축을 위해 지원을 호소함 지역사회 지원사업이 국가사업이 됐음
	상담자 개입이 제한적인 환경임	지원사업결과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됨 지원사업결과 필요한 청소년이 도움받음
	제도화/제도 운영에 보완이 필요함	유관기관 구성원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됨 한정된 예산에서 후원물품을 정하기 어려움
	내담자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사업보고회나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됨 사업보고회에서 발언권이 없었음
	제도 개선 촉구 활동에 참여함	제도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함 공청회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이 필요함
정책화/제도화를 촉구함	내담자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정소년상담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 제도가 개선되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음
	제도 개선 촉구 활동에 참여함	동반자의 열악한 상황으로 청원에 참여함 상담사 소진은 내담자에게도 부정적임
	제도 개선으로 내담자가 혜택받음	청소년상담전화 활성화에 동참함 전문상담교사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함
	제도 개선 촉구에 어려움을 겪음	청소년동반자 처우개선 국민청원에 참여함 상담사 처우 개선 활동에 참여함
	제도 개선 촉구에 적극성이 필요함	상담사 처우 개선으로 상담역량도 향상됨 상담사 처우 개선으로 관련인 인식이 개선됨
	내담자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온라인상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움 처우개선 항의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움
	제도 개선 촉구 활동에 참여함	동반자 처우개선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상담사 처우 개선에 다수가 연대해야 함
	제도 개선으로 내담자가 혜택받음	상담사/상담활동 홍보에 적극성이 요구됨 상담사의 인권 옹호에 적극성이 요구됨
	내담자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제도 개선 촉구 활동에 참여함	

하거나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개입한 경험을 의미하는데, ACA 옹호역량의 여섯 번째 역량에 해당된다. 이 영역에는 ‘지역사회자원을 개발함’, ‘정책화/제도화에 기여함’, ‘정책화/제도화를 촉구함’ 등 3개의 상위범주와 13개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고, 범주별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자원을 개발함

참여자들은 1388청소년지원단 등 관내 청소년지원단으로 활동할 기관과 전문가를 발굴하거나 청소년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지역사회자원을 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여자는 기관사업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실태조사 결과 지역에 청소년문화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운영보고대회에서 발표하여 지역사회에 청소년문화시설이 개소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저희가 연구사업을 했어요. 이번에도 저희가 11월에 정책토론회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을 경험했지만 그걸 조금 더 딛고 일어선 사례들을 직접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사례를 인터뷰하고 자료를 수집하면 그걸 토대로 저희가 정책토론회 때 지역민들한테 공유할 거거든요. (연구결과 및 상담사례를 공유함, 참여자 1)

한편, 참여자들은 지원단 참여기관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새로운 지원단체를 발굴하더라도 이들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지원단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이 확장되는 만큼 업무가 증가하면서 업무가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었고, 기관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담당자로서 상담사와는 역할이 다르다고 여겨져서 상담사로서 정체성을 고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여자는 이러한 개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상담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상담전문인력이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담당은 진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연계만 놓고 봐도 학교에서 성교육이라든가 솔리언이라든가 사회성 향상이라든가 다양한 상담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의뢰를 하시죠. (...) 근데 캠프는 사실 상담이랑은 다른 정말 청소년 활동이잖아요. 이런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저는 제일인 거예요. (사업담당자로 상담사 정체성을 고민함, 참여자 2)

정책화/제도화에 기여함

참여자들은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이나 서비스 구축을 위해 시군구회의에서 발언을 하거나 유관기관 협의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향후 정책화 및 제도화에 기여했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한 참여자는 기관에서 시군구회의에 청소년 실태를 알리거나, 기관에서 개최한 사업보고회나 공청회를 통해 사업 성과가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지원사업이 국가사업화되어 청소년 지원환경이 마련되었던 사례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참여자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상담사가 관내 지원사업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생각, 즉 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 실태를 알리고 지원을 호소하는 사업보고회나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거나 상담사가 실무자로서 발언권을 얻지 못하는 경우 개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참여자는 사업보고회나 공청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제는 여가부나 한청원 차원에서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해줘서 후원물품이 들어오고 꿈드림에서는 상담복지센터에서 후원물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좀 더 단위가 커진 거죠. 후원물품을 받는 건 똑같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됐던 것들을 여가부나 한청원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 이게 아예 국가사업으로 돼서 지금은 바우처 카드처럼 아이들한테 카드를 카드 안에 돈을 넣어 주거든요. (지역사회 지원사업이 국가사업이 됐음, 참여자 3)

‘제도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지 않을까요?”인 거지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좀 더 제도화된다면 다른 친구들의 어려움이 또는 대중화된 어려움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도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함, 참여자 3)

정책화/제도화를 촉구함

참여자들은 현재 1388청소년상담전화 등 열악한 청소년상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명운동에 동참하거나 전문상담교사 제도 개선이나 청소년동반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여자는 전문상담교사 제도가 개선되어 상담교사 선발인원이 늘어나면 재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담회에 참석해서 전문상담교사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참여자는 학교 전문상담사로서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무기계약직이라는 더 안정적인 지위를 얻게 되면서 상담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고 고용이 안정되면서 상담역량을 높이는 데 더 노력하게 되었다. 또한 상근자로서 관련인인 교사와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서 교사와 학부모와의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거나 개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상담사로서 처우 개선이라는 결과를 얻기까지 교육청 항의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감내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들은 상담사의 처우 개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수가 연대해야 하며, 상담사들이 상담사 및 상담활동을 외부에 알리는 등 정치적 ·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참여한 이유는 그렇게 목소리들이 모여야 조금 더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각계각층에서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같이 내면 조금 더 효과가 커질 수 있고 그러면 빠른 시

일 내에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효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참여를 했었어요. (제도가 개선되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음, 참여자 8)

2년 계약직으로 일할 당시에는 내가 고용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나 고용이 안 되면 시험 공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일단 고용이 안정되니까 저는 내가 좀 더 능력을 발휘하려면 능력을 좀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자격도 따야 되고 이런 연수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거에 좀 더 전념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상담사 처우 개선으로 상담역량도 향상됨, 참여자 6)

영역 8: 면접을 통한 참여자 인식 변화

영역 8은 참여자들이 본 연구를 위한 면접에 참여하면서 청소년 상담현장에서 자신이 진행한 개입들을 사회정의상담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조명하면서 얻게 된 성찰과 인식

의 변화를 나타낸다. Charmaz(2006/2013)는 연구를 위한 심층면접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새롭게 얻게 된 인식을 확인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면담의 주체인 연구자와 참여자가 면담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경험과 인식이 확장된다는 구성주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이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검토하고 관련된 개입의 경험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확인하였다.

참여자 인식 변화

참여자들은 면접에 참여하면서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높아졌고, 사회정의 관점에서 복지적 성격을 지닌 청소년기관사업에 공감하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사회정의 상담이론을 접한 적이 있지만 현장에서 이미 진행 중인 외적 개입을 사회정의 옹호활동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을 통해 이러한 외적 개입을 사회정의 상담활동으로 재정의하고 사회정의 상담역량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한 참여자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현

표 10. '면접을 통한 참여자 인식 변화' 범주 및 개념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이해가 증진됨	사회정의 상담활동을 이미 해왔음
참여자 인식 변화	청소년기관사업에 공감함	필요성은 인식하나 적용하기 어려움
	상담사의 현실을 고민함	사회정의 상담역량 강화를 기대함
		청소년기관의 복지적 접근에 공감함
		기관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다양해짐
		상담사의 역할과 범위를 고민함
		상담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함
		상담사들과 문제의식 공유를 기대함

장의 업무량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면서도,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할수록 사회정의 상담활동에 점차 숙련되고 사회정의 상담역량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전통적인 상담 외에 복지적 접근을 활용하는 것이 모순적으로 느껴졌지만, 청소년상담 현장에는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껴 청소년기관사업에 공감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정의상담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다면 분명 쉽지 않으실 거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이지만 관심을 갖고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월해지고 능숙해지는 부분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네트워킹이고 사람들 간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이 그런 걸 취합하는 것이고 가지고 있던 걸 내담자한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 어느 순간 쌓이고 숙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이해가 증진됨, 참여자 2)

현장에서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이론으로 이렇게 사회정의상담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처음 알면서 저도 새롭게 보게 된 것 같아요. 상담자의 접근 방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상담복지에서는 정말 필요하기는 하겠다, 그런 생각은 청소년 대상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대상인데 기관 특성으로도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청소년기관사업에 공감함, 참여자 5)

또한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청소년상담기관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포함되면서 기관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다양해지는 현실에 대해서도 수용하고 적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접을 통해 사회정의 옹호활동을 포함한 상담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상담사의 역할을 돌아보면서 상담 및 상담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 상담 분야에 대한 불만과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도 토로하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여자는 기관에서 상담사의 열악한 현실에 무력감을 느꼈던 상황에서 사회정의상담을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변화를 기대하는 등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얘기하다 보니까 상담(계) 전체에 대한 불만이나 어려움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상담사의 처우에 대한 것도 많이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상담사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한 질문이었는데 오히려 상담사의 처우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담사의 현실을 고민함, 참여자 11)

청소년상담자의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일반적 구조

지금까지 청소년상담자의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11명의 청소년상담자들의 관련 경험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상담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분석한 결과를 통합하여 일반적인 경험적 구조(empirical framework)를 조직화하여 제시하고 관련 현상에 대한 이론을 도출하

고자 한다(Arczynski & Morrow, 2017; Charmaz, 2006/2013). 청소년상담자가 인식하는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경험적 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범주들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상담자들은 청소년 내담자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빈곤,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내담자 개인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 취약한 환경으로 인한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 심리 내적 개입만으로는 내담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이때 상담자들은 청소년 내담자를 위해 내적 개입 외에 다양한 외적 개입을 실행하는데, 내담자가 상담에 관여하는 정도나 상담자가 개입하는 수준에 따라 여러 유형의 개입을 실행한다. 상담자는 사례개념화, 사례회의 등을 통해 청소년 내담자의 호소문제와 여건을 고려하여 내담자가 관여하는 정도나 상담자가 개입하는 수준을 결정하는데, 내담자 개인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 상담자는 자기주장훈련 등을 통해 내담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개발하는 개입을 진행하였다. 내담자가 매우 취약하거나 스스로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자는 본격적인 개입을 실행하기에 앞서 연계할 만한 지역사회 자원이나 지원 정보를 검토하고 새로운 조력자를 파악하고 연결하는 등 사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외에도 내담자 개인이나 상담기관 내 자원이 부족한 경우 상담자들은 학교,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나 부모, 교사 등 조력자를 통한 지원 등 협업 중심으로 개입을 진행하였다. 청소년상담자들은 상담장면에서 직접 대면하는 청소년 내담자뿐 아니라 잠재적인 청소년 내담자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개입을 진행하는데,

내담자를 포함한 잠재적인 대상자들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파견 예방교육 등 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인식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개입을 진행하였다. 청소년상담자들은 청소년 내담자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기존의 자원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문제 예방을 위한 정보나 프로그램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였다. 청소년 내담자 및 대상자의 문제를 다루고 예방하는 데 요구되는 자원이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부재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체 빌굴 등을 통해 새로운 물적·인적 자원을 개발할 뿐 아니라 거시적 관점으로 청소년 문제에 접근하여 정책토론회 개최, 공청회 참여 등을 통해 청소년상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화와 제도화에 기여하거나 정책화와 제도화를 촉구하는 개입을 진행하였다.

논 의

국내 상담 분야에서는 내담자의 문제를 초래하는 사회적 상황 및 구조를 고려하고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정의상담은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환경적 맥락을 고려하고 억압, 차별,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모순으로부터 내담자를 옹호하는 관점을 채택하는데, 이러한 관점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내담자 유형 및 서비스 대상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자들의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청소년상담자들의 경험과 역할을 사회정의상담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이

론 및 연구, 상담실제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다.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청소년상담자들의 인식 및 경험과 관련해서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점들이 도출되었다.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청소년상담자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참여자들은 청소년안전망사업, 지역사회기반 청소년상담모형, 위(Wee)프로젝트 등이 사회정의상담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청소년상담자들은 주요 청소년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클래스 등 대표적인 청소년 공공상담기관에서 사회정의상담에 해당하는 외적 개입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개인의 적응이나 변화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학대 피해,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이나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사회정의상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참여자들은 소수자에 해당하는 청소년 내담자와의 상담 경험을 통해 사회정의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이는 이재복 등(202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재복 등(2022)의 연구에서도 상담자들이 소수자 내담자와의 상담 경험을 통해 전통적인 개입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정의상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사가 사회정의 상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상담 고유의 영역이 보전될 뿐 아니라 상담사 및 상담 전반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상담실무자와 일반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국내 상담전문가의 정체성을 확인한 안수정 등(202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안수정 등(2021)에 따르면 상담 실무자들이 심리 내적인 경험과 역동에 초점을 맞추는 특성을 상담의 고유성으로 인식하

면서도, 상담전문가들은 이러한 미시적 관점뿐 아니라 거시적이고 사회 참여적인 관점도 지닌다고 보는 등 상담 및 상담사의 정체성이 점차 변화하고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정의 상담활동을 포함함으로써 상담 및 상담사 고유의 영역이 보전될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안수정 등(2021)의 연구에서 일반인들은 내담자에게 실질적인 방안을 안내하고 중재하는 등 내담자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을 상담사의 주요 역할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참여자 중 한 명은 부의 학대를 당하는 청소년 내담자에게 부와의 분리를 제안하였는데, 외국인인 내담자의 모가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자 상담자가 모의 부동산 방문에 동행하거나 상담자가 대신하여 다문화 가정 지원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한 참여자는 부모의 채무 상속을 걱정하는 청소년 내담자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였다. 전통적인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 경험을 자발적으로 탐색하는 데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조언이나 정보 제공을 부정적으로 보는 데 반해, 아동,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등 차별과 억압을 경험하는 소수자 내담자의 경우에는 지원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낮을 수 있어 필요시에는 실질적인 조언이나 정보 제공이 효과적일 수 있다(임은미, 구자경, 2019). 본 연구결과 청소년상담자들은 전통적인 상담 외 정보 제공 등 사회정의상담을 통해 청소년 내담자의 취약한 현실에 관여해 왔는데, 한 참여자는 이러한 개입으로 내담자가 지역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을 인식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상담자들은 사회정의상담을 상담실제에 적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사회정의 상담활동을 도전으로 인식하거나 실제에 적용하는 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은 청소년 특성상 내담자의 주변 환경에 대한 외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심리 내적 개입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등 사회정의상담을 도전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정의상담을 위해 상담사에게 전통적으로 규정된 역할이나 지위와는 다른 옹호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보수적인 조직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야기 할 수 있다(Bemak & Chung, 2005; Chung & Bemak, 2012/2020). 또한 참여자들은 사회정의 상담이 인접 분야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인접 분야와 차별화되는 상담자의 직업 전문성과 상담기관의 전문적 위상을 확립하는 것을 사회정의상담을 실행하는 데 우선적인 과제라고 인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정신건강 분야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 간에 고유하고 차별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할 경우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혼란과 갈등이 초래되고 전문가들 간 협력이 저해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수정 등, 2021; 이종범, 김수임, 2024; King & Ross, 2003; MacLeod et al., 2016; Mellin et al., 2011).

본 연구결과 국내 청소년상담자들의 구체적인 사회정의 개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참여자들은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이해가 적은 상태에서도 ACA 옹호역량과 유사한 다차원적 개입을 활발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자들은 청소년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미시적 수준의 개입부터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중간 수준의 개입과 공공 영역에 접근하는 거시적 수준의 개입까지 ACA 옹호역량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개입을 실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상담자들이 옹호라는 개념을 가지고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위기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적·제도적 어려움을 함께 다루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옹호활동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난 국내 연구결과와 유사하다(장해영, 2022; 장해영, 구자경, 2023). 한편, 본 연구결과 사회정의상담과 유사하다고 보고된 지역사회기반 청소년상담은 정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 확대되면서 중앙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적으로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제공되고 있다(노성덕, 2018). 본 연구에서 다수의 참여자들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속으로 청소년동반자사업이나 청소년안전망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참여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공공상담기관에서 새로운 상담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국민적 공감을 얻은 사안이 정책화되고, 정부정책사업을 상위기관의 지시로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 상담사업은 협업, 연계부터 정책사업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중간 수준의 개입부터 공공영역에 접근하는 거시적 수준에 이르는 ACA 옹호역량 개입과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결과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국내 청소년상담자의 인식과 관련해서 선행연구

에서 확인하지 못했거나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것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의 상담활동을 수행하는 상담자들의 근무 환경이나 여건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 참여자들의 다수가 사회정의상담의 적용 가능성을 논하는 데 청소년상담자의 열악한 근무 현실을 주요하게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청소년안전망사업, 청소년동반자사업 등 기존의 청소년 상담사업 및 지원체계가 상담자의 정체성을 위협할 정도로 역할 과부하 및 업무 가중을 초래하는 현실에서는 상담자들이 사회정의 상담활동을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하여 이를 수행하는 데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사회정의상담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기존의 관련 상담사업 및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조직 내 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를 중심으로 옹호활동 경험을 살펴본 장해영(202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들이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상담사로서 지역사회에서 전문가로 권위를 인정받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되고 수익 창출에 대한 부담 없이 옹호활동을 유연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옹호활동에 필요한 자원에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하고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상담자들은 다소 다른 경험과 의견을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은 공공상담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열악한 처우와 과도한 업무량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회정의 상담활동이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시간제 청소년동

반자는 한정된 근무시간과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시간 외 추가적인 외적 개입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교내 위클래스 상담사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직 등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얻기 전까지 교사, 학부모 등 학내 구성원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 개입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종합하면, 공공상담기관 상담사의 경우에도 계약직, 정규직 등 직위와 직무 환경에 따라 사회정의 옹호활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공공상담기관은 전문적인 상담 제공 외 다양한 상담사업을 진행하면서 정규직이나 상근직 외 외래상담자 등 다양한 상담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데(노성덕, 2018) 직위와 직급에 따라 지역사회 정보 및 자원 접근성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협업 등으로 외적 개입이 요구되는 사회정의 상담의 경우 직위와 직급에 따른 접근성과 개입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청소년상담의 특징을 반영한 독특한 사회정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청소년상담과 미국 청소년상담은 문화적·제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정의상담에 있어서도 국가별 청소년 상담자의 역할과 개입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정의상담과 유사하다고 언급한 우리나라 지역사회기반 청소년 상담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구분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주요 대상으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노성덕, 2018). 이는 본 연구결과 공공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청소년상담사업에 참여한 상담자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자원을 발

글하는 등의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상담의 경우 국내에서는 위(Wee)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를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배치했는데, 전문상담교사 활동 매뉴얼을 통해 전문상담교사의 개입방법 중 하나로 지역사회 네트워킹 및 연계활동을 제안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그러나 전문상담교사 외 학교상담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전문상담교사들도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내적 개입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현모, 이상민, 2017). 따라서 전문상담교사를 포함한 학교상담자에게 사회정의 옹호역량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학교 차원에서 학생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지원을 학교상담자 개인이 파악하고 연계하면서 심적 부담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 참여한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경우 내담자에게 필요한 병원동행, 이주배경청소년 학습지원 등을 제공할 조력자 혹은 기관을 상담사 재량으로 지역사회지원을 탐색하면서 파악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담자로서 업무가 가중되거나 학부모의 불신으로 내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사회정의상담을 학교상담자의 직무 및 역할로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상담자들이 내담자를 위해 사회정의상담을 실시하면서도 이를 효과적인 상담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 학교상담사의 경우 주별로 학교상담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는 학교상담자의 자격과 활동 범위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성현모, 이상민, 2017). 또한 미국 유초중등학교 학교상

담자에게는 국가수준 학교상담모형에 따라 억압과 불평등을 경험하는 학생들을 옹호하고 정치적·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책무가 부여되었고, 상담자들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환경적 맥락에 개입하기 위해 ACA 옹호역량을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다(Ratts et al., 2007).

연구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상담 분야에서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에서 사회정의상담 및 옹호활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청소년상담 분야의 사회정의상담 및 옹호활동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클래스 등에서 실무자로서 외적 개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지만, 다수의 참여자들이 이를 사회정의상담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연구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접근을 사회정의상담으로 재정의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미 외적 개입을 통해 사회정의상담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회정의상담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이러한 접근이 개인의 심리 내적 개입 중심인 전통적인 상담에서 벗어난 일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외적 개입을 실행하였고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내적 개입과 외적 개입의 적정한 비율을 고민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Ratts 등(2016)은 다문화 및 사회정의 상담에서 내적 개입과 외적 개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는 데 내적 개입에 해당하는 개인

상담이 적절한지, 외적 개입에 해당하는 사회정의 옹호활동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상담사의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내적 개입과 외적 개입의 균형은 내담자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는데(Lewis et al., 2011; Ratts et al., 2016), 이는 본 연구결과 청소년상담자들이 사례개념화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개입을 위한 사전 계획 활동을 진행하는 것처럼 내적 개입과 외적 개입의 균형을 위해서는 내담자 이해 등 기본적인 사례개념화에 충실히 함을 시사한다. 한편, 청소년상담이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사회정의상담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개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상담사의 전문적 위상과 상담기관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는 상담사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통해 상담 및 상담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상담사 및 상담기관에 대한 신뢰와 협조를 얻어야 사회정의상담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 공공기관인 청소년상담기관에서 상담사들이 사회정의에 기초한 상담활동 및 상담사업을 실행하는 과정도 국민적 관심을 얻은 사안이 정책화되면서 실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일반 대중들에게 상담 및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을 얻는 것이 사회정의 상담활동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상담 분야에서 사회정의 상담활동이 현실화되려면 상담사의 처우, 직무 환경 등 현실적인 여건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국내 현장에 사회정의상담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상담사의 처우 개선이

라고 보고하였다. 상담사의 처우 개선 및 권의 향상을 위한 개입은 ACA 옹호역량에서 사회적 · 정치적 옹호활동(Social/Political Advocacy) 중 하나인 정책적 ·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과도 관련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전문상담교사제도가 개선되어 전문상담교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되면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청소년상담자의 지위와 권익은 청소년내담자를 위한 개입효과 및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상담자의 지위 확보와 권의 확대를 정책화 · 제도화하는 것이 사회정의 상담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정의 옹호활동에는 내담자 옹호뿐 아니라 상담전문직 옹호(Professional Advocacy)가 포함된다 (Myers & Sweeney, 2004). 내담자 옹호는 상담사가 내담자의 안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 정치적 · 경제적 맥락을 고려하는 활동이라면, 상담전문직 옹호는 상담전문가의 권익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담전문가를 지원하고 상담전문직을 옹호하는 활동을 의미한다(Storlie et al., 2019). 이러한 관점에서 상담사의 권의 옹호를 위한 활동은 상담전문직 옹호에 해당되고,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언급한 상담사 옹호 관련 내용은 국내 관련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예를 들어, 김미진과 권경인(2022)은 계약직 상담사가 다수인 학교상담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적절한 상담을 내담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을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Stewart et al., 2009), 상담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이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상담전문직 권리옹호 활동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지영과 정은선(2019)은 상담 관련 현장에서 불안정한 위치로 인해 억압과 차별을 경

험하고 있는 다수의 상담사도 옹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상담사의 열악한 직업 현실 및 직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담사가 스스로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상담사의 자기옹호(Self-Advocacy) 개념(Wehmeyer et al., 2000)과 ACA 옹호역량을 참고한 상담사 자기옹호모형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내담자의 문제 해결과 상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사 및 상담전문직 옹호 활동이 내담자를 위한 활동과 동반되어야 사회정의 상담활동이 본격화될 수 있어 학회 등 전문가집단 차원에서 상담사 권익을 보장하고 옹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사회정의 및 옹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등 외부 자원 연계 활동을 청소년상담자의 주요 역할 및 정체성의 일부로 인식하면서, 지역사회자원 연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최신화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다수의 참여자들은 사회정의 및 옹호활동 중 하나인 지역사회자원 연계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내담자에게 연계 할 만한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하기 힘들어했을 뿐 아니라, 활동 초기에는 지역사회자원 연계 활동을 상담사의 고유업무로 인식하기 어려워하는 등 역할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상담자들이 사회정의 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상담사의 역할로 인식하고 자신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상담사의 인식과 활동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슬아와 배성훈(2020)은 학교에서 만나는 위기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가 복합적인 환경요인

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상담도 상담실 안에서뿐 아니라 학교 밖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목록화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매뉴얼로 제작함으로써 상담사의 지역사회자원 확보 및 활용을 독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성슬아와 배성훈(2020)은 상담사의 지역사회자원 연계 능력의 요소를 제안했는데(예: 지역사회자원 종류 인식, 자원 이용법, 지역사회기관 연계법, 기관 네트워크 방법),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활용 교육을 학위과정 및 수련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미래 상담사의 자원 연계 능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청소년상담 분야에서도 사회정의상담 및 옹호활동을 교육및훈련과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상담 분야에서도 다문화·사회정의 옹호상담을 위한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구의 교육과정을 참고한 교과과정 및 교육과정 등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김은하 외, 2019; 임은미, 2020; 정지선, 2020).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일부 참여자들은 옹호자 역할을 이론상으로는 접했지만 본격적으로 이를 훈련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정의 옹호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담 현장과 상담사 교육과정의 간극을 해소하고 청소년상담자의 정체성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학자-실무자-옹호자 교육모델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내에 소개되고 제안된 교육과정 및 교육모델에 청소년상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프로그램 효과가 입증된 과학자-실무자-옹호자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상담 분야에서 제 5세

력으로 불리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개되는 사회정의상담(Ratts, 2009)을 국내 현장에 도입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상담모형과 사회정의상담과의 유사성이 발견되는데, 두 상담모형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청소년상담모형의 독창성과 보편타당성을 검토하고 획득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위(Wee)프로젝트 등이 국내에서 개발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된 점(노성덕, 2018)을 고려하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정의상담을 국내에 도입하는 데 국한하지 않고 한국의 청소년상담모형을 독자적인 상담이론 및 개입전략 중 하나로 실용화하고 보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11명의 청소년상담자들의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인식과 관련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포함한 연구 참여 안내문을 사전에 전달하여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고,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연구자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상담자들은 사회정의상담에 관심이 있으며,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다른 청소년상담자들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가 다른 청소년상담자에게도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사들이 모두 여성이었는데, 당시 참여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남성 상담사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청소년상담 분야에 여성 상담사들이 주로 종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에서는 청소년 상담경력 2년 이상인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는데, 청소년상담 경력에 따라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도 지역사회자원 연계활동의 경우 실무자로서 경력이 쌓이면서 정보나 자원을 파악하고 연계하는 활동이 점차 수월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상담사들의 사회정의상담 및 사회정의 옹호활동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의(및 옹호)상담의 대표적인 개입에 해당하는 ACA 옹호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정의상담에 대한 국내 청소년상담자들의 인식과 관련 경험을 확인하였다. 미국상담학자들이 제안한 옹호개념 및 옹호역량모형에 기초하고 미국상담학회로부터 인준 받은 ACA 옹호역량(Toporek et al., 2009)은 우리나라 청소년상담 및 청소년상담자의 현실을 탐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ACA 옹호역량 외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청소년상담자의 사회정의상담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전문상담교사 운영 및 활동 매뉴얼.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5706>
권복규, 최은경, 김도경, 이경도 (2022). 자율규

- 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김미선, 임은미 (2021). 기업상담자가 경험한 내담자의 문화다양성 및 역량강화와 옹호 경험. *질적탐구*, 7(3), 373-410.
- 김미진, 권경인 (2022). 비정규직 학교 전문상담사의 상담자 직종 권익옹호 경험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23(4), 61-90.
- 김민정, 최한나 (2021). 상담자의 옹호활동에 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853-881.
- 김보라, 오영섭 (2021).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의 국제적 연구동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5), 231-252.
- 김은하, 신윤정, 이지연 (2019). 상담전공대학 원생을 위한 다문화 상담 교과 과정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321-1364.
- 김인규, 김동일, 김소아, 노성덕, 손재환, 유현실, 이호준 (2021). 상담행정과 정책. 사회 평론아카데미.
- 김지영, 정은선 (2019). 사회정의 옹호상담을 적용한 상담자 자기옹호에 관한 고찰. *상담학연구*, 20(4), 1-17.
- 노성덕 (2018). 지역사회기반 청소년상담의 실제. 학지사.
- 민문경, 이나빈, 안현의 (2015). 공감 능력이 사회 정의 실천에 미치는 영향: 사회 인지적 관점에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4), 575-594.
- 박한샘, 고은영 (2009). 청소년동반자 활동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0(4), 1971-1994.
- 방기연 (2022). 상담전공 석사과정 경험에 대한 단일사례연구: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적용. *교육공동체연구와실천*, 4(3), 111-129.
- 배영광, 권경인 (2018). 초심여성청소년동반자의 위험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9(2): 149-171.
- 성슬아, 배성훈 (2020). 심리상담사의 지역사회 자원연계 능력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7(3), 357-377.
- 성현모, 이상민 (2017). 학교상담제도의 국제비교연구. *상담학연구*, 18(5), 263-285.
- 신윤정, 지은, 윤효정, 이희재, 강유진, 전주람 (2021). 북한배경 청소년들의 사회·문화 자본 관련 국내 진로상담연구 동향 및 사회정의옹호상담 적용방안. *상담학연구*, 22(6), 413-456.
- 심지경, 김미애 (2023). 유아교사들의 소진 경험과 정체성 형성: 구성주의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유아교육연구*, 25(1), 170-207.
- 안수정, 안하얀, 서영석 (2021). 상담전문가의 정체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 113-158.
- 안현의 (2003).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에 관한 논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461-475.
- 안혜신, 장유진 (2021). 상담자가 인식하는 사회정의 옹호역량에 관한 개념도. *다문화 교육연구*, 14(2), 25-53.
- 여성가족부 (2023). 2023 청소년 통계.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 오경자, 이기학, 배주미 (2006). 청소년동반자 활동 메뉴얼(개정판).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소연, 서영석, 김재훈 (2018). 사회정의에 기초한 진로상담 및 직업상담: 상담자 역할과 상담자 교육에 대한 시사점. *한국심리*

- 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515-540.
- 이재복, 장소정, 김영신, 남목민, 조훈제, 이수정, 연규진 (2022). 상담자들의 사회정의 옹호역량 발달 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1), 1-34.
- 이종범, 김수임 (2024). 상담의 정체성과 상담 사의 역할: 비의료적 사회서비스의 주체. *상담학연구*, 25(2), 1-23.
- 임은미 (2015). 학교장면에서의 옹호상담 방안 템색. *교육학연구*, 53(3), 119-140.
- 임은미 (2016). 한국 상담자를 위한 사회문제 옹호 척도(SIAS)의 타당성 검증. *상담학연구*, 17(4), 1-20.
- 임은미 (2017). 한국 상담자를 위한 사회정의 옹호역량 척도(SJACS-K)의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8(6), 17-36.
- 임은미 (2019). 교사들의 문화다양성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초등학교 여교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6(2), 205-232.
- 임은미 (2020). 한국 상담자의 수퍼비전을 위한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수퍼비전의 통합방안 템색. *상담학연구*, 21(5), 27-46.
- 임은미, 강혜정, 김성현, 구자경 (2018). 한국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9(1), 421-442.
- 임은미, 구자경 (2019).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학지사.
- 임은미, 여영기 (2015). 사회정의 상담: 저출산 시대 진로진학상담의 새로운 방향. *교육 종합연구*, 13(3), 141-161.
- 장해영 (2022). 상담사의 위기청소년 옹호활동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상담사를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해영, 구자경 (2023). 청소년동반자의 위기청소년 옹호활동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질적탐구, 9(4), 363-385.
- 정순례, 양미진, 손재환 (2020).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2판). 학지사.
- 정안숙 (2015). 현대한국사회에서 공동체심리학의 역할: 공동체심리학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3), 667-683.
- 정지선 (2020). 다문화 및 사회정의 상담을 위한 상담자 교육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225-248.
- 정지영, 임은미 (2021). 수퍼바이지의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수퍼비전 경험에 대한 현 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22(6), 479-506.
- 최가희 (2018). 사회정의와 상담심리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249-271.
- 통계청 (2022). 아동 · 청소년 삶의 질 2022. https://kostat.go.kr/board.es?mid=a90101010100&bid=11887&act=view&list_no=422754&tag=&nPage=1&ref_bid=12054,12059,12056,12058,12060,12062,11887,12053,12055,12057&keyField=T&keyWord=%EC%95%84%EB%8F%99%C2%B7%EC%B2%AD%EC%86%8C%EB%85%84%20%EC%82%B6%EC%9D%98%20%EC%A7%88%202022
- Arczynski, A. V., & Morrow, S. L. (2017). The complexities of power in feminist multicultural psychotherapy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4(2), 192-205.
- Arredondo, P., Toporek, R., Brown, S. P., Jones, J., Locke, D., Sanchez, J., et al. (1996). Operationalization of the Multicultural

- Counseling Competencie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ling & Development*, 24(1), 42-78.
- Bemak, F., & Chung, R. C.-Y. (2005). Advocacy as a Critical Role for Urban School Counselors: Working Toward Equity and Social Justice.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8(3), 196-202.
- Charmaz, K. (2005). Grounded Theory in the 21st Century: Applications for Advancing Social Justice Studies.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pp. 507-535). Sage Publications, Inc.
- Charmaz, K. (2013). *근거이론의 구성: 질적 분석의 실천 지침* (박현선 · 이상균 · 이채원 역). 학지사. (원본 출판 2006년).
- Chung, R. C-Y., & Bemak, F. (2020). 사회정의 상담: 다문화주의의 적용, 이론, 실천을 넘어선 다음 단계 (임상사회복지실천연구회 역). 학지사. (원본 출판 2012년).
-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홍식 · 정선우 · 김진숙 · 권지성 역). 학지사. (원본 출판 2007년)
- Fouad, N. A., Gerstein, L. H., & Toporek, R. L. (2006). Social justice and counseling psychology in context. In R. L. Toporek, L. H. Gerstein, N. A. Fouad, G. Roysircar, & T. Israel (Eds.), *Handbook for social justice in counseling psychology: Leadership, vision, and action* (pp. 1-16). Sage Publications, Inc.
- Gall, M. D., Gall, J. P. & Borg, W. R. (2003). *Educational research: An introduction* (7th ed.). Allyn & Bacon.
- Geldard, K., & Geldard, D (2015). *청소년 상담: 청소년을 위한 선행주도 접근방법* (김시원 역). 한울. (원본 출판 2010년).
- Glaser, B., & Strauss, A. (2011). *근거 이론의 발견: 질적 연구 전략* (이병식 · 박상우 · 김사훈 역). 학지사. (원본 출판 1967년)
- Goodman, L. A., Liang, B., Helms, J. E., Latta, R. E., Sparks, E., & Weintraub, S. R. (2004). Training counseling psychologists as social justice agents: Feminist and multicultural principles in action. *Counseling Psychologist*, 32(6), 793-837.
- King, N. and Ross, A. (2003) Professional Identities and Interprofessional Relations: Evaluation of Collaborative Community Schemes. *Social Work in Health Care*, 38(2), 51-72.
- Lee, C. C., Baldwin, R., Mamarà, S. M., & Quesenberry, L. (2018). Counselors as agents of social justice. In C. C. Lee (Ed.), *Counseling for social justice* (3rd ed., pp. 3-20).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Foundation.
- Lewis, J. A., Lewis, M. D., Daniels, J. A., & D'Andrea, M. J. (2011). *Community counseling: A multicultural-social justice perspective* (4th ed.). Brooks/Cole Cengage Learning.
- MacLeod, B. P., McMullen, J. W., Teague-Palmieri, E. B., & Veach, L. J. (2016). What Does the Public Know About Professional Counseling? A Study of Public Knowledge and Perception of Professional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or Leadership and Advocacy*, 3(2), 95-110.
- Mallinckrodt, B., Miles, J. R., & Levy, J. J. (2014). The scientist-practitioner-advocate model: Addressing contemporary training needs for social justice advocacy. *Training and*

-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8(4), 303-311.
- Mellin, E. A., Hunt, B., & Nichols, L. M. (2011). Counselor professional identity: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9(2), 140-147.
- Morse, J. M., Stern, P. N., Corbin, J., Bowers, B., Charmaz, K., & Clarke, A. E. (2011). *근거이론의 발전: 제2세대 (신경림 · 김미영 · 신수진 · 강지숙 역)*. [원본 출판 2009년].
- Myers, J. E., & Sweeney, T. J. (2004). Advocacy for the Counseling Profession: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2(4), 466-471.
- Ratts, M. J. (2009). Social Justice Counseling: Toward the Development of a Fifth Force Among Counseling Paradigms.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48(2).
- Ratts, M. J., DeKruyf, L., & Chen-Hayes, S. F. (2007). The ACA advocacy competencies: A social justice advocacy framework for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11(2), 90-96.
- Ratts, M. J., Singh, A. A., Nassar McMillan, S., Butler, S. K., & McCullough, J. R. (2016). Multicultural and Social Justice Counseling Competencies: Guidelines for the counseling profession.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44(1), 28-48.
- Stewart, T. A., Semivan, S. G., & Schwartz, R. C. (2009). The art of advocacy: Strategies for psychotherapists. *Annals of the American Psychotherapy Association*, 12(2), 54-59.
- Storlie, C. A., Woo, H., Fink, M., & Fowler, A. (2019). A Content Analysis of the Domains of Advocacy Competencies in Select Counseling Journals: 2004-2016. *Journal of Counselor Leadership & Advocacy*, 6(1), 42-54.
- Toporek, R. L., & Chope, R. C. (2006). Individual, programmatic, and entrepreneurial approaches to social justice: Counseling psychologists in vocational and career counseling. In R. L. Toporek, L. H. Gerstein, N. A. Fouad, G. Roysircar, & T. Israel (Eds.), *Handbook for social justice in counseling psychology: Leadership, vision, and action* (pp. 276-293). Sage Publications, Inc.
- Toporek, R. L., Lewis, J. A., & Crethar, H. C. (2009). Promoting systemic change through the ACA advocacy competenci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7(3), 260-269.
- Toporek, R. L., & Liu, W. M. (2001). Advocacy in counseling: Addressing race, class, and gender oppression. In D. B. Pope-Davis & H. L. K. Coleman (Eds.), *The intersection of race, class, and gender in multicultural counseling* (pp. 285-413). Sage Publications, Inc.
- Wehmeyer, M., Bersani, H., Jr., & Gagne, R. (2000). Riding the third wave: Self-determination and self-advocacy in the 21st century.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15(2), 106-115.

원고 접수일 : 2024. 07. 30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9. 21

게재 결정일 : 2024. 10. 23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5, Vol. 37, No. 1, 131-180

Youth Counselors'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Social Justice Counseling

So Yeon Rhie Young Seok Seo

Yonsei University

Student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youth counselors regarding social justice counseling. To this end,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11 youth counselors who had at least two years of experience in youth counseling and had applied interventions aligned with social justice counseling. Data were analyzed using constructivist grounded theory. As a result, we identified youth counselors' 'perceptions of social justice counseling,' including 'similarities with the existing youth counseling system,' 'applicability of social justice counseling,' 'social justice counseling as a challenge,' 'expanding the role of counselors,' and 'shift to a scientist-practitioner-advocate education and training model.' Youth counselors implemented interventions such as 'client empowerment,' 'pre-planning activities,' 'collaboration,'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blem prevention intervention,' and 'resource/policy development.' Additionally, they experienced 'changes in their perception' of social justice counseling through these interviews. Finally, implications for counselor education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justice, advocacy, youth counseling, social justice counseling, constructivist grounded theory